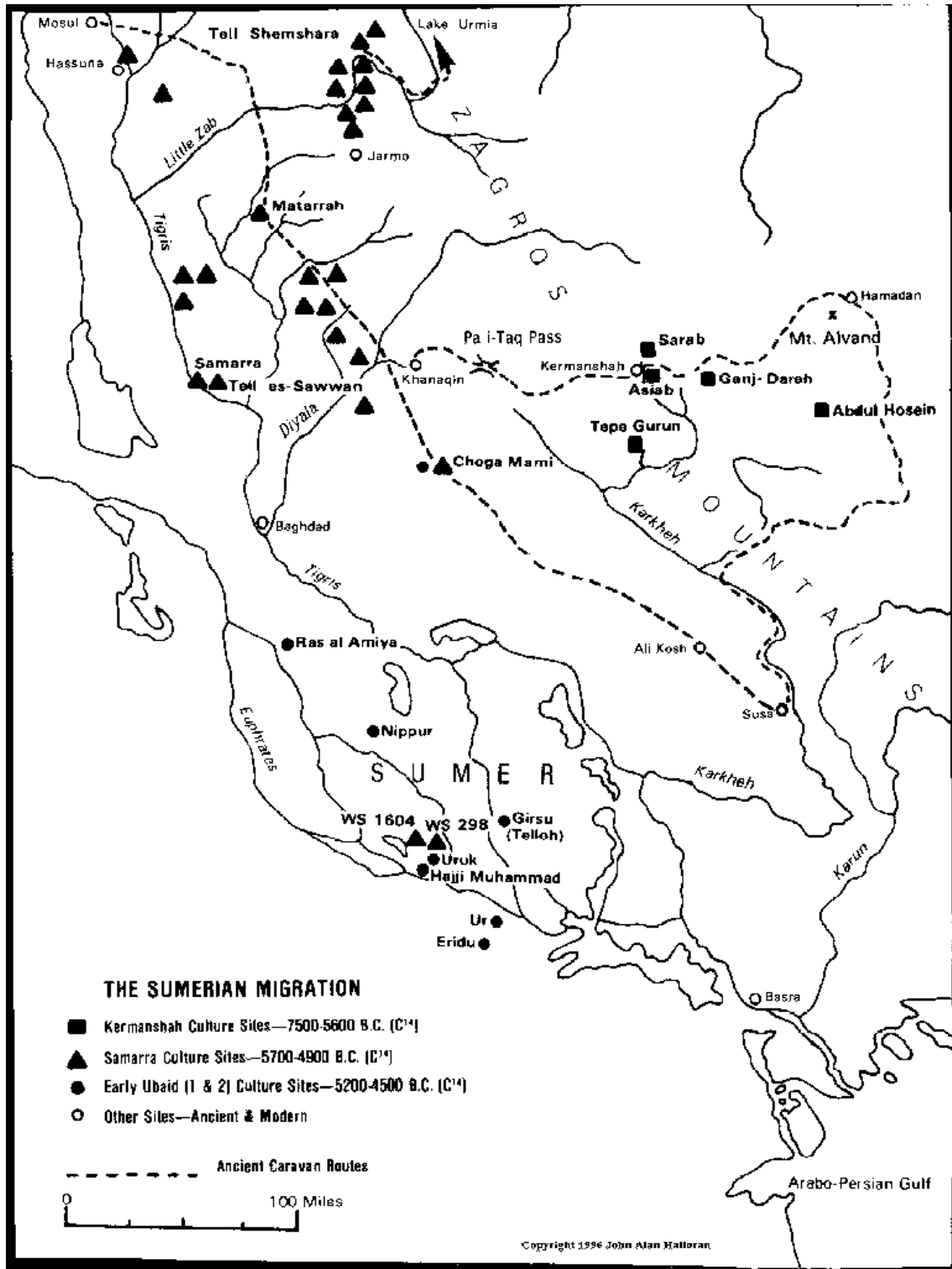


1)수메르어(Sumerian)

1-1)수메르인(sumerian)

// 수메르인들은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직은 없다. 이들이 산들을 본 때 만든 피라밋 모습의 사원(寺院)인 지구라트(ziggurats) 등을 볼 때 수메르인들은 아마 동쪽 산악지대에서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몇몇 전통들은 그들이 선사시대 오래 전에 해안 근방에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 하부(下部) 지역 토착민이었으리라. 그리고 아마 수메르인의 첫 문명을 창조했던 사람들은 이미 인종적으로 혼합된 집단이었으리라. 어쨌든 '수메르인'이라는 용어는 인종적인 것 보다는 언어적인 것이다--이들의 언어는 셈(족의 언)어가 아니다. 그리고 수메르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들의 가장 오래된 도시 에리두(eridu)에 이어 기원전 3000년 중반에 우르(ur)와 라가스

(lagash)와 움마(umma) 등의 도시들이 건설된다.//



1-2) 수메르인의 언어(Sumerian Language)

수메르 인의 언어는 가장 오래 존재한 문자(written) 언어(言語)이다. 기원전 3100 년 경의 기록이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는 수메르 어는 기원전 2000~3000 년 사이에 주로 많이 쓰였다. 비록 자신의 문자체계를 받아들인 셈족의 아카디아 어(앗시리아-바빌로니아 어, Assyro-Babylonian)에게 문자 언어 지위를 내어 주는 대신 소리(spoken) 언어로 명맥을 유지하긴 해도, 수메르 어의 문자적인 용법(usage)은 기독교 시작 무렵의 아카디아(Akkadian) 언어 말기까지 주욱 이어진다. 수메르인(sumerian)은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자신의 본디 경계들을 결코 많이 확장시키지는 않았다. 작은 수의 본디 수메르어로 말하는 자(speaker, 話者)들은 그 비율에 걸맞지 않게 모든 국면에서의 다른 고대 문명들과 Mesopotamian의 발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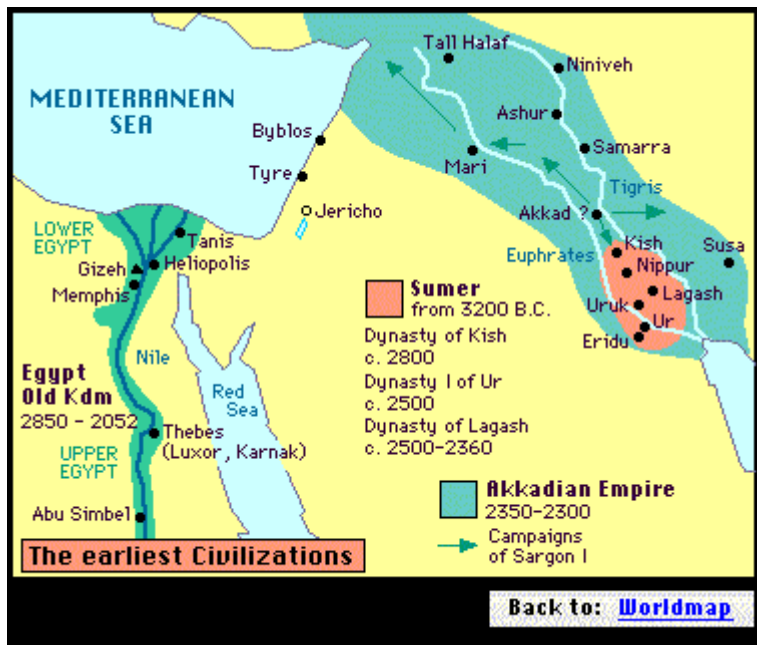
// 수메르어(sumerian)는 기원전 세 번째 천년의 중반부터 기원전 마지막 세기들까지 현대 이라크 지역의 남부 Mesopotamia에서의 글로 쓰여진 의사소통을 위한 탈 것(매체, vehicle)으로서 사용됐다. 문어로서의 수메르어는 시리아와 이란과 Anatolia 등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들에서 마찬가지로 연구됐다. 소리 언어로서의 수메르어가 언제 소멸됐는 지를 확정지을 수는 없다. 대략 기원전 2600 년 경 이 언어로 쓰여진 첫 문학 텍스트들의 시기에, 이미 둘 이상의 문어적인 셈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셈족 자국어들의 사용 증거가 있다. 2350~2200 년 경을 제외한 1900 년 경 이전은 수메르어가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지배적인 글로 쓰여진 언어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 문학적인 그리고 제의적인 텍스트들로만 거의 머무를 뿐, 일상적인 편지와 행정 문서들에는 자신의 문자를 받아들인 아카디아 인의 셈어(Cooper 1973)가 주로 쓰이기 시작했다. 수메르 인의 문어 텍스트들은 자주 아카디아 어로 번역되어 기원전 2 세기까지 계속 필사(copied, 筆寫)됐으며 때로는 심지어 개작(composed, 改作)까지 이루어졌다. 오늘 날까지 수메르어와 어떤 다른 언어 사이의 생성적인 어떤 연결 고리도 성공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학자들은 *드라비다 어와 알타이 어와 시노-티벳 어가 바로 이 수메르 어에 연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이미 기원전 세 번째 밀레니엄에 수메르어는 셈족으로부터 빌려온 많은 낱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메르어 문법의 고전적인 진술은 여전히 오늘 날까지 사용되는 Poebel(1923)이다. Falkenstein(1959)은 그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학자들 중의 한 사람에 의한 간결한 기술이다. Diakonoff(1967)는 많은 길에서 Falkenstein에 근거한 그러나

중요한 통찰들로 채워진 간결한 문법이다. Jacobsen(1965)은 비록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언리학(glossematic, 言理學)적 관점으로부터의 동사체계의 중요한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Thomsen(1984)은 1983년까지의 문법에 관한 저술들의 완성된 문헌을 지닌 그 분야에서의 앞의 상태에 관한 포괄적인 요약이다.//

1-2-1)역사

수메르어의 네 가지 시기들이 구분될 수 있다: 시원적인(Archaic) 수메르어와 Old 또는 Classical 수메르어와 New 수메르어와 Post-Sumerian(후기-수메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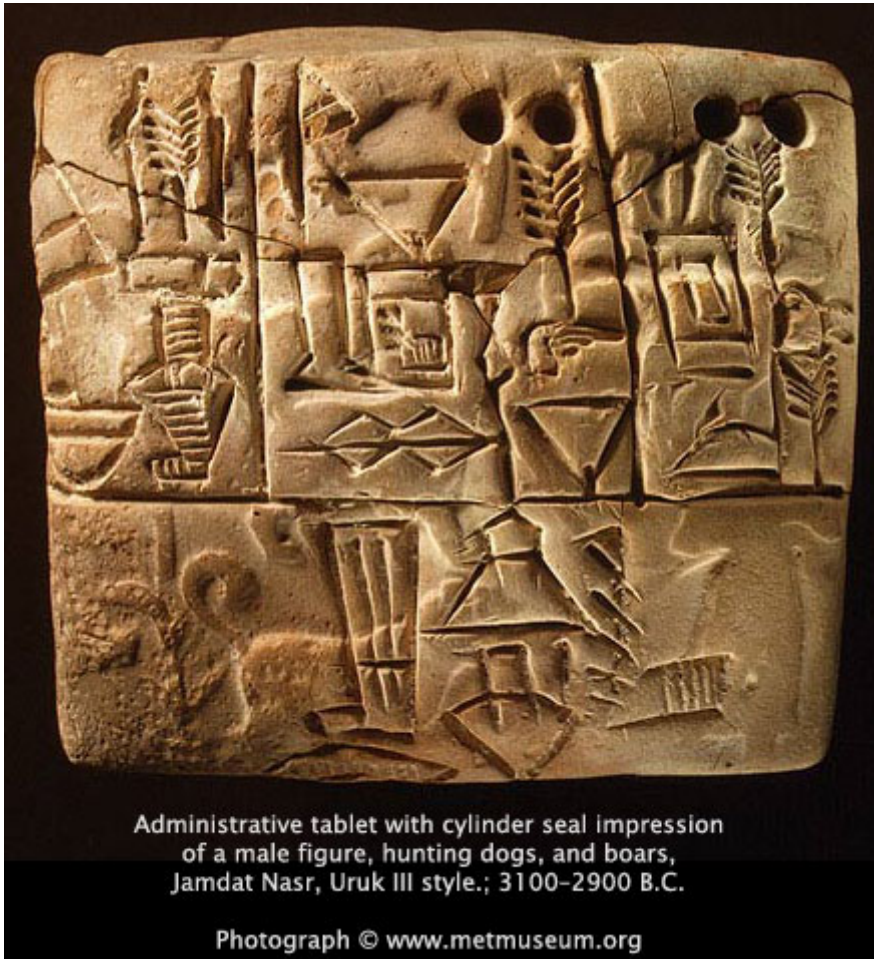
시원적인 수메르어는 수메르어 첫 기록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냈던 때인 약 기원전 3100년 경부터 약 기원전 2500년에 이르는 시기를 께 안는다. 가장 빠른 수메르어 글쓰기(writing)는 거의 배타적으로 사업과 행정적인 특성의 텍스트들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기호들과

낱말들을 글로 쓰는 단순한 연습 형태의 학원 텍스트들도 있다. 부분적으로 초기 수메르어 글쓰기의 읽기와 해석을 둘러싼 어려움들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재원들의 빈약함 때문에 시원 수메르인의 언어는 여전히 아주 부족하게 이해되고 있다.

수메르어의 고대 또는 고전적인 시기는 약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2300년까지 지속됐다. 이 시기는 주로 Lagash의 초기 지배자들의 기록들로 대표된다. 수메르인의 언어의 쓰임새는 사업과 법과 행정적인 텍스트들에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대부분 봉헌된 특성의 왕궁과 사적인 비문들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재원들은 선행 시기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숫적으로 많으며, 그리고 그 글쓰기는 수메르어의 문법과 사전의 충분한 재구성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뚜렷하게 충분하

다.

Sargonic 왕조 시대 동안에 셈족 아카디아인(Akkadians)들이 수메르어의 진보의 결정적인 퇴행을 표시해주는 Babylonia의 정치적 주도권을 쟁취한다. 이 시기 동안에 아카드인들의 언어가 고대 아카드 제국의 전체 지역에 두루 광범위하게 사



용된 반면 수메르어의 사용은 점차적으로 고유한 수메르(Sumer) 적인 지역에 한정된다. 사르곤 왕조 말기에 향하면서 수메르어의 요소들이 다시 전면에 나타나면서 결국 아카드인의 진보가 퇴행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이러한] New 수메르어 시기는 [시리아] 그 사막으로부터의

셈족속들의 새로운 침입들이 Ur 제 3 왕조의 지배권을 파괴하고 그리고 Isin과 Larsa와 Babylon의 셈 왕조들을 확립하는 데에 성공한 때인 기원전 약 2000 년 경에 끝나게 된다. 신 수메르어 시기는 과도한 갯수들의 행정적인 텍스트들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Isin과 Larsa와 Babylon의 왕조들의 시기 그 나라의 수도이며 가장 중요한 도시로 됐던 Babylon [이라는 이름에] 따라, Old Babylonian period 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 동안에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수메르인의 그 언어는 점차적으로 말해진(spoken) 언어로부터 사라졌다. 그러나 그 언어는 쉐기문자 글쓰기의 쓰임새의 바로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글로 쓰여진(written) 용법

(usage)에서 계속 이어진다. 이것이 “**Post-Sumerian**”(말기-수메르어)라고 불리우는 수메르어의 마지막 무대이다.

수메르어-말기의 초기 무대에서는 글로 쓰여진 수메르어의 쓰임새가 왕궁 비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이고 행정적인 텍스트들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왕궁의 비문들은 가끔 2 개 언어 즉 수메르어와 바빌로니아어로 쓰여졌다. 구전(oral) 전통에 의해서 더 오래된 수메르어 시기들로부터 전승된 많은 수메르 문학적인(literary) 작품(compositions)들이 처음으로 고대 바빌로니아 시기에 글로 쓰여지게 된다. 보다 더 많은 것들이 지금은 상실된 원본들로부터 부지런한 서기관들에 의해서 필사(copied, 筆寫)됐다. 이 부유한 수메르어 문헌은 신화들과 서사시, 찬양시들과 애가(lamentations, 哀歌), 제의들과 주문들, 그리고 격언들과 소위 “지혜” 작품들과 같은 그런 다양한 자연의 텍스트들로 나타난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기 이후 수 세기 동안 수메르어에 관한 연구는 바빌로니아인들의 학교에서 계속됐다. 기원전 7 세기 느즈막에 Assyria의 마지막 지배자들 중의 하나인 Ashurbanipal은 어려운 수메르어를 읽을 수 있다고 자랑했으며 그리고 심지어 보다 후기 시기로부터 헬레니즘 시대에도 그리이스어 글쓰기의 문자들로 음역(transcribed)된 수메르어 낱말들을 보여주는 몇 몇 췌기문자 점토판들이 있었다.

재 발견: 기독교 시대에는 수메르어에 관한 모든 얇이 췌기문자 글쓰기와 나란히 사라졌으며, 연이어진 세기들에서는 심지어 Sumer 라는 이름조차 기억으로부터 사라졌다.

자신들의 역사들과 전통들이 성서적인 그리고 고전적인 재원들의 문서 속에 남아있는 Assyria와 Babylonia와 Egypt와는 달리, 사람들로 하여금 고대 수메르인들의 존재를 심지어 추측하게 조차 할 수 있는, 초기 문명들의 역사에서의 수메르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식별하게끔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비(非)-메소포타미안 재원들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췌기문자 글쓰기(쓰기법, writing)의 해독이 19 세기의 초기 십 수년 동안에 이루어졌을 때, 췌기문자로 쓰여진 세가지 언어들 곧 췌족 바빌로니아어와 인도-유희 피언 페르시아어와 언어학적 소속(affiliation)이 알려지지 않는 Elamite가 발견됐다. 바빌로니아어의 글로 쓰여진 텍스트들이 보다 더 잘 이해된 후에야 비로서 학자들은 바빌로니아어와는 다른 언어의 글로 쓰여진 텍스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됐다. 그 새로운 언어가 발견됐을 때 그것은 바빌로니아 또는 앗시리아에서 말해진 췌어에게 주어진 새로운 바로 그 이름에 의해서 Scythian으로 지시되거나 또는

심지어 Akkadian이라고조차 지시됐다. 그 새로운 언어에 관한 얇이 자라면서 그 언어에게 **Sumerian** 이라는 올바른 이름이 주어졌다.

/// 글로 쓰여진 첫 번째 언어인 수메르어(Sumerian)는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거주민들의 언어였다. 수메르어 텍스트들은 기원전 약 3100 년 경의 **Uruk IV** 기 시작에 확인된다. 비록 가장 이른 텍스트들의 글쓰기가 거의 전적으로 그림문자(pictographic)여서, 그 기저(underlying, 基底) 언어가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gi, “return” 대신에 gi, “reed”와 같은 그런 동음이의적(homonymous)인 언어를 위한 몇몇 기호들의 쓰임새는 우리에게 이런 텍스트들의 언어가 사실 수메르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준다. 그러나 가장 이른 텍스트들 중 많은 것은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보다 후의 시기들까지 살아남지 못한 많은 기호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대부분의 초기 동안, 서기관들은 어떤 텍스트의 정확한 발음과 형태론과 구문론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 보조 장치로서의 주요 항목들 또는 표어를 기록하기 위해 그 글쓰기 체계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 언어의 구조의 대부분은 서기관들이 수메르 원주민 화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것 곧 문어로서의 수메르어를 배웠던 앓카디아인 화자들이었을 때 글로 쓰여진 보다 후의 텍스트들로부터 반드시 재구성되어야만 했다. 점토 판들에 새겨진 가장 이른 글쓰기는 그림문자였으나, 수세기 동안 그것은 갈대 첨필로 점토에 찍혀진 췌기-모양의 기호들 곧 췌기문자로 발전했다. 수메르어 췌기문자 체계는 자신들의 언어를 글로 쓰려 했던 Akkadian과 Eblaite와 Hurrian과 Urartian과 Hittite와 Elamite 말 하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 차용(borrowed, 借用)된다.

수메르어는 여러 연대기적인 국면들로 나뉘어질 수 있으리라: **Old Sumerian**, 가장 이른 시기부터 기원전 약 2100 년까지, 고대 수메르어는 Lagash 그리고 초기 III 왕조 시기(기원전 26세기부터 24세기까지) 날짜가 매겨지는 다른 쪽들로부터의 텍스트들과 그리고 Sargonic 시기(기원전 23세기부터 22세기까지)로부터의 텍스트들과 그리고 기원전 22세기 말 Lagash의 지배자 Gudea의 비문들을 포함한다; **Neo-Sumerian**, 신-수메르어는 Ur III 왕조의 광대한 수의 행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문서들과 그리고 다른 텍스트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기원전 1900 년부터의 **Late Sumerian**. **말해진 언어(spoken language)**로서의 수메르어의 죽음 날짜는 논쟁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기 말 경(기원전 약 1900-1600)에는 거의 확실하게 엄밀한 **문어(literary language)**였다. 몇몇 학자들은 이미 Ur III 시기(약

기원전 2100-2000)에 이미 살아있는 언어로서의 수메르어는 죽었다 라고 주장했다.

수메르어의 가장 공통으로 확인된 방언은 “ 풍부한 언어 ”(princely language)를 의미할 eme-gir₁₅ 라고 불리운다. 다른 방언은 그 화자가 여인이거나 또는 gala(비탄, lamentation) 사제일 때의 몇몇 문어적인 텍스트들에서 사용된, “ 빈약한 언어 ”(thin language) (또는 “fine”(섬세한) 또는 “high-pitched”(격-양된))를 의미 할 eme-sal이다. 마찬가지로 의심할 것도 없이 지역 방언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텍스트 자료의 증거는 없다.

아주 다양한 수메르어 텍스트들이 확인된다. 이미 가장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경제적인 텍스트들은 수메르어 텍스트들의 아마 약 90%을 포괄하는 여태까지 가장 큰 집단이다. 그러나 법적인 텍스트들과 왕궁 비문들이 초기 왕조시기부터 기록된다. 신화와 서사시들과 격언들과 찬양시들과 기도들과 주문등 다양한 장르의 문어적 텍스트들이 있다. 수메르어 학자들이 자신들의 앎을 그것에 의해 조직하고 그것들의 글쓰기 체계를 가르쳤던 사전적인- 그리고 백과사전적인- 양식의 텍스트들과 다양한 일련의 사전적인 목록들이 기원전 3000 년까지 나타난다. 후에 앗카디아인 서기관들은 일련의 바로 이러한 것들을 수메르어를 배우기 위해 사용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언어로 그것들에 주석을 덧붙혔다.

수메르어는 예를들어 é dumu-(a)n(i)-ak-a, 문자적으로는 “in his son’s house” 대신 “house son-his-of-in”와 같이, 낱말들을 형성하기 위해 다소 간에 변경되지않은채 이어지는 구체적인 형태소들을 묶는 교착(agglutinative, 膠着)어이다. 마찬가지로 수메르어는 자동사의 주어의 격(case)이 타동사의 목적의 그것과 동일한 능력(ergative, 能格)구문들을 드러낸다. 다음의 보기에서의 어미없는(-φ) 형식 é, “house”에서처럼 말이다: lugal-e é-φ in-dù, 문자적으로 “the king built the house” 대신에 “king-by(=by the king) house was-built”; é-φ ba-šub, “the house collapsed”.///

//수메르어는 썰기문자 스크립트로 쓰였다(Civil 1973 참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글쓰기 체계이며, 아마 서 아시아의 모든 글쓰기의 직접 또는 간접적 재원일 것이다. 기원전 3100 년 경까지 날짜가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썰기문자 판(tablets)들은 남부 이라크 Uruk 도시의 신성화된 경내의 III과 IV 지층(levels)들에서 발견됐다. 가장 이른 텍스트들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읽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억 보조 장치들이며 문법적인 요소들을 기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메르어로 쓰였다고 결론적으로(definitely) 진술 할 수는

없다. 사실 그것들이 어떤 특별한 언어를 기호화(encode)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주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이르다고 알려진 문어적인 텍스트들의 시기까지(약 기원전 2300 년 경) 대부분의 췌기문자 텍스트들은 수메르어로 쓰였다는 것은 확실하다—비록 기호들의 어순이 여전히 자주 임의적이며 그리고 모든 문법적인 요소들이 글로 쓰여진 것은 아니기는 해도 말이다. 기원전 2400 년까지 서기소(graphemes, 書記素)들이 읽혀져야 할 순서대로 글로 쓰여지기 시작했으며, 2100 년에 이르러서야 문법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글로 쓰여졌다. 심지어 가장 이른 수메르어 문어적 텍스트들의 시대에서조차 심지어 그 글쓰기 체계는 최소한도 두 개의 샘플 언어, Eblaite와 Akkadian를 표현하기 위해 채용됐다. 충분히-성숙한 췌기문자 글쓰기 체계는 명사들에 접두되거나 접미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발음되지 않는 의미론적인 분류사(classifiers)들과 마찬가지로 (의존적인bound 그리고 독립적인) 형태론적인 그리고 음절적인 분절들을 기호화한다. 더구나 그러한 기호화는 몇몇 겹치기는 해도 의미론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음소적이고 형태론적인 수준들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현대 음역(transliteration, 音譯)에서 관습적으로 아랫 첨자 수들로 주어지는 동음이의어적인(homophonous) 기호들로 귀착된다. lugal uru^{ki}-ke₄-ne ‘kings of the cities’로 음역되는 일련의 것은 lugal ‘king’, uru ‘city’, 고 유이름들을 위한 의미론적인 분류사 ki, 소유격 -ak, 그리고 복수 -ene 등과 같이 형태론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리라.

기호화하는 다른 류형들의 비율(ratio)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텍스트적인 유형들에 있어서도 변한다.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갈대 첨필로 점토판들 위에 쓰여졌다. 훨씬 드물기는 해도 기념비적인 텍스트들은 돌 대상들 위에 새겨졌다. 글쓰기 체계의 자연 때문에 수메르어의 공시(synchronic, 共時)적이고 통시(diachronic, 通時)발전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통시적인 변화는 명확하게(definitely) 반성됐으며 그리고 몇몇 증거가 방언적인 다름들을 위해 존재한다. 문어적인 텍스트들에서의 대부분 발음된 다름은 ‘표준’ eme gir, 가능하게 ‘princely tongue’(풍부한 언어)와 eme sal, ‘thin tongue’(빈약한 언어) 사이의 다름이다. 후자는 단지 여성에 의해 쓰여진 문어적 텍스트들에서 그리고 gala 라고 불리우는 사제들의 특별한 부류에 의해 암송된 제의적인 텍스트들에서 만 발견된다. 두 방언들 사이의 주요한 구분은 음성학적이다. 필적학(graphological)적 수준에 근거한 어표(logographic)적인 기호와 음절적인 기호 사이의 통계적인 관계는 장소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그리고 심지어 텍스트 장르에 따라 다르다. 그 글쓰기 체계는 글로 쓰여진 언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그것에 외적인 분리된 개체로서

가 아니라, 그 문법의 성분으로 반드시 분석되어야만 한다.//

1-2-2)특징들.

수메르어의 언어학적인 친족성은 아직 성공적으로 확립되지 못했다. (Turkish를 포함하는)Ural-Altaic, Dravidian, Brahui, Bantu, 그리고 언어들의 많은 다른 군들이 수메르어와 비교됐지만, 어떤 이론도 공통의 인정을 획득하지 못했다. 수메르어는 그것이 연결(concatenation) 원리를 통해서 [낱말] 앞에 붙고 가운데 끼어 들고 뒤에 붙는 요소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소 변화를 하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intact) 오근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교착(agglutinative, 膠着)적인 언어이다. 예를 들어 인도-유럽어인 또는 셈족 언어들에서 존재하는 바 그대로의 명사들과 동사들 사이의 차이는 수메르인(Sumerian)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메르어 dug 라는 낱말은 홀로 “speech”와 “to speak” 이 양자를 의미한다. [이 경우] 명사와 동사의 차이는 구문론과 다른 접사(affixes)들에 의해 가리켜진다.

수메르어의 음소적인 체계는 네 개의 모음들 a, i, e, u과 15 개의 자음들 b, d, g, h, k, l, m, n, p, r, s, ś, š, t, z으로 구성된다. 명사의 경우 성(gender)은 표시되지 않았다. 복수는 접미어들 -me(또는 -me +esh), -hia, -ene에 의해서 또는 kur + kur에서처럼 중복(reduplication)에 의해서 가리켜졌다. 대략 라틴어 격 변화에 상응하는, 명사의 관계 형태소들은 주어(주격)을 위해서는 -e, “of”(소유격)을 위해서는 -a(k), “to”, “for”(여격)을 위해서는 -ra, “in”을 위해서는 -a, “from”(ablative)을 위해서는 -ta, “with”(committative)를 위해서는 -da, 그리고 “for(시간의 길이)”, “for(의도)”를 위해서는 -sh(e) 등 등이 쓰였다.

다양한 접두사들과 삽입사(infixes)과 접미사들의 연결을 지니는 수메르어 동사는 아주 복잡한 그림을 제공한다. 동사와 묶어지는 요소들은 굳어진 순서를 따른다: 양상(modal)요소들, 시간요소들, 관계요소들, 사역(causative)적인 요소들, 목적어 요소들, 동사 어근, 주어요소들, 그리고 자동사 현재-미래 요소들. 과거 타동사 능동에서의 목적어 요소와 주어 요소의 어순은 거꾸로다. 동사는 인칭과 수에 덧붙여, 타동사와 자동사, 능동과 수동, 그리고 현재-미래와 과거(preterit) 등 두 시제(tenses)를 구분한다.

여러 수메르어 방언들이 알려져있다.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메르어의 공식 방언인 eme-KU와 그리고 찬양시와 주문들의 작성에서 가끔 사용되는 방언인 eme-SAL이다.

1-2-3)음성학

수메르어의 소리체계는 잘 확정되질 않는다. 그것은 글쓰기에 있어 찾아내기 어려운 변화를 의심할 것도 없이 겪었다. 아주 최소한도로, 수메르어의 분절적인 음성학은 모음들 i e a u와 아마 o를 아래 표에서 보여지는 자음들과 더불어 포함했다.

수메르어 자음소들					
Stops	무성음	p	t		k
	유성음	b	d		g
Fricative	마찰음		s	š	x(h)
Nasal	비음	m	n		ḡ
Lateral	측음		l		
Trill	진동음		r		
		Labial 순음	Apical 혀끝소리	Palatal 경구개음	Velar 연구개음

이것은 공통으로 인정된 음소 목록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미완성적이다. 마찬가지로 췌기문자 스크립트로 쓰여진 셈족 아카디아어가 수메르어 이전에 해독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록 아카디아어 역시 소멸됐지만 그것의 음성학적인 체계는 주로 히브리어와 아랍어와 유비에 의한 비교학적인 셈족학(comparative Semitics)의 토대에 근거하여 재구성됐다. 결국 이런 가정적인 재구성이 수메르어의 해독을 위한 토대로서 봉사했다. 수메르어는 하나 또는 더 많은 반모음(glides)들과 모음들의 비음화와 순구개음(labiovelar)적 폐쇄음들을 포함했다고 제안됐다. 음성학적인 특질과 서기소(graphemic, 書記素)적 특질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 어렵다: 예를들어 마지막 자음들은 보통 글로 쓰여지지 않으며, 어떤 시기에는 유성 폐쇄음과 무성 폐쇄음이 마지막 위치에서는 구분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강세(stress)도 찾아내기 어렵다—비록 음절적인 글쓰기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강세의 결과로서의 모음들의 어중음(syncopation, 語中音)소실을 가리키기는 해도 말이다.

1-2-4)형태론과 구문론

수메르어는 문법적인 성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동사의 그리고 소유대명사의 3인칭 행위자(actor) 삽입어(affixes)들에 있어서만 형태론적으로 생물과

무생물 이라는 두 가지 명사 부류를 구분했다. 세 가지 인칭들과 그리고 단수와 복수 등 두 가지 수들이 있다. 아래 대명사들의 표를 보라.

수메르어 대명사들			
		Independent 독립	Suffixed 접미적
단수	1	ḡae	-ḡu
	2	zae	-zu
	3	ene	-(a)ni/-bi
복수	1	menden	-me
	2	enden	-zune(ne)
	3	enene	-anene

한정어(Definitness)는 표시되지 않았다. 명사적인 구문론은 능격(ergative, 能格, 타동사문의 목적어와 그것에 상응하는 자동사문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의 격)이 었으나, 화제가된 한정된 생물 지시물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독립 대명사들에 있 어서는 중성화됐다. 동사의 일치는 시제/상(tense/aspect)에 의존하는 분열된(split) 능격이었다. 근본 낱말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였다. 심지어 소유 구문들에서조차 형용사는 명사 뒤에 왔다. 명사들의 파생적인 형태론은 접미화를 사용했다: 접 미사 nam-이 namlugal ‘kingship’에서처럼 추상명사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됐다. 그 리고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들로부터 명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두사 niġ-사용했 다. 예를들어 ba ‘to give/receive gifts’로부터 niġ-ba ‘gift’.

부사구와 마찬가지로 주어와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는 아래처럼 낱말뒷부분에위 치하는 것(postpositions, 후접사)들과 더불어 표시됐다:

- Ergative -e
- Absolutive -∅
- Possessive -ak
- Benefactive -ra 수익자격(受益者格). 예, 격문법(格文法) 이론에서 ‘It’s for you’의 ‘for you’ 부분.
- Locative -a
- Adessive -še
- Ablative/Instrumental -ta
- Comitative -da

명사들은 복합 접미사 -bida(무생물 소유대명사 + 후접사postposition, ‘with its ...’)에 의해, 또는 셈족 차용어 u와 함께 결합된다. 소유는 두 가지 길로 표현된다: 표시되지않는 형식은 예를들어 lugal e-a(k) ‘owner house-of’에서처럼 NP₁ NP₂ + a(k)였다. 그러나 그 두번째 요소가 화제로(topicalized)될 때 그 구문은 e-a(k) lugal-bi ‘house-of its-owner’였다. 얼마 되지 않는 근본 형용사들이 있었으나, 형용사 대부분은 명사화된 동사적 어간들이었다.

명사적 소유 어미들은 앞 쪽 도표(수메르어 대명사들)에서 주어진다. 접미사 -bi는 단수 또는 집단적 지시를 지닌 3인칭 소유 무생물 대명사로 기능할 수 있다. 지시 대명사 (lu-bi ‘that man’)처럼 또는 부사적 어미(gal-bi ‘greatly’)처럼 말이다.

복수는 -meš(본디 계사 me ‘to be’ + 복수 -eš)의 또는 대명사적 -ene(단지 생물 명사에서만)의 접미화를 통해서 또는 명사의 중복(lugal-lugal ‘all kings’)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복수 명사가 형용사에 의해 제한될 때 후자는 중복된다:

ㄱ) lugal gal gal ‘great kings’

복수의 다른 유형이 여전히 개별화하는 힘을 지닌 dil ‘one’의 근원적인 반복인 접미사 -dildili를 불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ㄴ) lugal-dildili ‘the kings, one by one’

동사 형태론은 계속 수메르어 문법 중의 아주 논쟁적인 부분들 중의 하나이다. 동사 어근은 접두사와 접미사 이 양자를 취했다. 접미화가 지배적인 명사와는 달리, 동사는 접두사들의 우세를 포함한다. 접두사와 접미사 연결(chains)들에 관한 연구에 있어 초기 1980년 대에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8 년에 이르러서도 문법의 이 부분에 관한 인정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런 접사첨가(affixes)들이 법(mood)과 시제/상(tense/aspect)과 (과거/완료에 있어서의) 주어와 직접목적어들과의 일치와 (현재-미래/미완료에 있어서의) 능동인과 수동인의 일치와 그리고 부사 보어들과의 일치를 표현한다—의미론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bal은 ‘to transfer, cross’이다 그러나 삽입어(infix) -ta ‘to pour off, libate’를 지니는.

동사는 두 가지의 근본 형을 지닌다. 그러나 이것들이 시제 도는 상(aspect, 相)

을 표현하는 지는 선명하지 않다. 그 두 가지 형들은 접사첨가(affixation) 또는 어근 반복 또는 어근 변경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명령은 과거/완료 어근 뒤에 일련의(chain) 접두어를 놓음에 의해서 형성됐으며, 타동사 주어와의 일치를 보여 주었다. 마찬가지로 작은 수의 동사들은 단수와 복수를 위한 선택적인 어근들을 지녔다. 극단적인 보기는 네 가지 어근들을 지니는 gin ‘to go’이다: 과거/완료 단수 gin(사전적인 자국어 목록들과 주석들에서의 인용된 형식); 복수 (e)re; 현재/미완료 단수 du; 그리고 복수 sub. 동사 어근들은 단순하거나 또는 복합적이다. 복합적인 것은 접사들을 취하는 ak ‘to do, make’ 또는 dug ‘to speak’와 같은 그런 보조동사와 그리고 명사로 구성된다. 복합적인 것은 자주 그것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들과의 명백한 의미론적 관계를 거의 지니지 않았다:

ㄷ) tag ‘to touch’ + zag ‘side’ → zag ... tag ‘to overthrow’

ㄹ) tag + gīš ‘wood’ → gīš ... tag ‘to sacrifice’

수메르어의 **구문론**은 깊게 연구되지 않았다. 유형론적인 의도를 위해 관계 절들의 선행(head)명사가 능동인 또는 수동인 또는 사격(oblique, 斜格)일 수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야 한다. 종속절에서의 동사는 끝에 위치한다.

2) 췌기(Cuneiform, 설형)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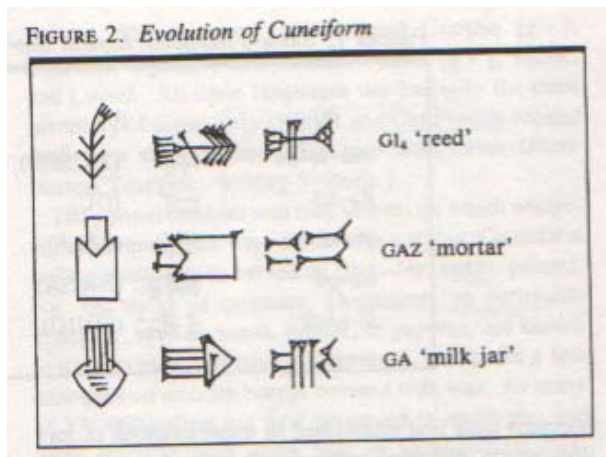
'췌기의'를 뜻하는 라틴어 'cuneus'로부터 온 'cuneiform'(독일어로는 Keilschrift)은 가장 널리 퍼진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요한 고대 근동의 문자체계로서 18 세기 초엽에 이르러 그 현대적인 모습(designation)을 보여주게 된다. 설형(楔形) 문자의 역사는 기원전 3천년 전체를 포함하며, 그것의 오랜 발전과 지역의 확장은 연이어진 수많은 문화들과 언어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국제 문명의 매개자로서의 그 전체적인 의의는 페니키아어-히랍어-라틴어 알파벳 다음의, [한문을 제외한다면], 유일한 두번째 것이다.

// 기원전 2900 년 경부터 기원 후 1 세기까지 근동에서 사용됐던 췌기문자의 가장 이른 표본은 바그다드 남동쪽 대략 250 km 지점에 위치한 지금의 와르카(Warka)인 고대 우룩(Uruk)에서 발견됐다. 췌기문자는 현재 *이라크*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먼저 사용됐으나 마찬가지로 췌기 문자 텍스트들은 *이란*의 남서쪽 수사(susa)와 그리고 *시리아*의 우가리트와 엘바(elba)와 *에마르*(Emar)와 그리고 *터키*의 보가즈코이(Boghazköy)와 *팔레스틴*의 메기

도(Megiddo)와 그리고 이집트의 텔 엘-아마르나(Tell el-Amarna)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텍스트들의 대부분은 고립된 언어였던 수메르 인의 언어 또는 마찬가지로 앓 수르-바빌로니아 인의 언어(Assyro-Babylonian)로도 알려진 셈족의 언어인 앓카디아어(Akkadian)로 쓰여졌다. 그러나 Eblaite, Elamite, Hurrian과 Urattian, Ugartian, Old Persian, Hittite, Palaic, 그리고 Luvian 등 다양한 언어군의 많은 다른 언어들은 수세기를 걸쳐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했다. 이런 모든 언어들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부호체계를 사용한다. 단지 우가리트어와 고대 페르시아어만이 이로부터 자신의 부호체계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정상적인 매체(medium)는 췌기모양의 상(像)이 철필로 그 위에 만들어지는 점토판들이다. 그러나 췌기모양의 글이 돌에 새겨지거나 또는 드물게 예를들어 벽돌이나 도자기에 그려지기도 한다. 나무나 가죽이나 파피루스와 같이 소멸 가능한 재료들에 쓰여진 문서들이 존재했다고 알려지고는 있으나 밀랍이 덧 씌어진 나무 판 몇 몇을 제외하고는 생존하지 못했다. 박물관들에는 지금 37만 5000 여 개의 점토판들이 보존 돼 오고 있으며 그리고 매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새로운 점토판들이 빛을 보고 있다.

가장 초기의 췌기부호들은 물리대상들을 그려내는 그림문자였다. 곡선들이 후에 곧은 철필의에 의해 직선으로 바뀌면서 그 모양들이 점점 단순해졌다. 이것은 인정된 단지 제한된 숫자의 췌기 꼴 각기 모든 것이 의미를 지녔던 신(新) 앓시리아 스크립트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보다 더 초기의 직접적인 단계에서는 단지 그 부호의 일반적인 형태만이 의미있었으며 그리고 철필에 의한 획들의 수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었다. 그려진 대상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독자는 반드시 현대에 편집된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부호들의 시작 부분 위치가 처음보다 오른쪽으로 90도 회전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식해야 한다.



기원전 2900~2350 년 경 초기 왕조 때의 가장 오래된 텍스트들은 예상 밖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텍스트들이 구(句) 또는 절을 포함하는 '경우'(cases)들로 각기 나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우의 부호들 즉 어떤 구문론적인

연결(sequence)도 없는 부호들의 배열은 그 글들(scribes)이 문장 수준의 말(speech)을 나타낸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들어 si gù ba-niin-ra(그는 거기에서 뿔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아래처럼 또는 아래와는 다른 배열로 쓰여질 수 있다:

si gù 또는 gù si
ra ba ba ra

이러한 위의 예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특징 곧 문맥을 보아 드러날 수 있는 문장요소들이, 대부분은 결합된 형태소들(bound morphemes) 곧 여기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삽입사(infix, 插入辭)인 '-ni-'와 3인칭임을 나타내는 '-n-'이, 생략됐다. 독자들은 생략된 바로 이 형태소들을 생각해내야만 한다. 기원전 24 세기 이후에는 각기 들어가야 할 자리에 형태소들이 제시되고 겨우 몇 되지 않는 음절문자(syllabogram)만이 생략된다. 기원전 19세기 경의 초창기의 고대 바빌로니아 때까지는 음절적인 글쓰기들은 어떤 경우에 마지막 자음들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었다. é-ba(쌍, pair) 또는 ma-sá(상자, a basket)에 있어서의 é-ba-an과 ma-sá-ab처럼. //

2-1) 그 기원과 글자(character).

설형문자의 기원은 기원전 4 번째 밀레니엄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리라. 이 때 민족학과 언어학적인 유사성이 우리에게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는 수메르인들이 남부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갈데아(Chaldea)로 알려진 유프라테스강 어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이들이 그 지역의 첫 번째 거주자들이라거나 이들이 자신들의 문자체계(스크립트)를 진짜 창조해 냈다는 것이 잇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형문자체계는 이 수메르 인들에게서 비로서 처음 확인된다. 고대 우르(ur)와 우룩(uruk)의 먼 선사 시대 층들에서의 발굴들은 선행하는 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데에 실패했다. 우룩으로부터 출토된 점토 판들에 수메르 언어로 쓰여진 가장 이른 **그림문자**(pictographic) 기록들은 무덤 대석(臺石)위의 그림 의해서 확인되는 그리고 더불어 숫자들도 나타내는 일일용품들과 **개인이름**들의 분명한 목록들이었다. 이러한 문자 단어들은 구체적인 대상들의 근본적인 관념(idea)들만을 단지 표현할 수 있었다. 숫자적인 관념들(notions)은 한 획(stroke)이나 원들을 반복하므로써 쉽게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고유명사**들의 표시는 상징화된 미숙한 문장(rebus, 紋章)에

필연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그려진 대상의 근본적인 관념(notion)들 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숨어있는 소리(sound) 형태를 읽는자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그림문자적 모양을 사용했다. 바로 이것이 순수 문자 낱말로부터 부분적인 음성 스크립트(phonetic script)에로의 전이를 가져왔다. 그래서 예를들어 손의 그림은 수메르 인의 šu('손')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음절(syllable)을 요구된 맥락 안에서 나타내게 된다. 수메르어의 낱말들은 대부분 단음절적(monosyllabic, 單音節)이어서 부호들(signs)은 일반적으로 음절들을 가리켰으므로, 하나의 낱말로써 하나의 음절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음절 스크립트어(a word-syllabic script)였다. 따라서 음성 기호들(phonetic symbols)의 발명은 수메르인들로 하여금 낱말-부호들에게 덧붙여지는 음성적인 요소들에 의해 문법적인 요소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 부호들로서의 낱말이 바로 표의문자(ideogram, 表意文字) 또는 표의기호(logograms)이다. 수메르인들은 동일한 소리를 내는 많은 낱말들(homophonous)들을 지녔으므로 여러 표의기호들이 동일한 음가(音價)들을 산출하게 됐다. 이것들이 현대 음역에서는 예를들어 ba, bá, bà, ba₄등으로 구분된다. 예를들어 '해'(sun)와 '날'(day)과 '밝음'(bright)와 같은 관련된 여러 관념(notion)들을 자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표의문자 하나는 하나 이상의 음성 값을 지니는, 다성(polyphone, 多聲)적인 특색을 보유했을 수 있었다.

기원전 세 번째 밀레니엄 동안에 수메르인들의 이러한 글 쓰기는 흘림체로 변하기 시작했으나, 결국 그 그림문자들은 직선적인 모양으로 굳어지는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도 종종 사용됐지만 필기도구로는 우선적으로 점토 판들(clay tablets)이었기 때문에, 직선적인 획들은 첨필(stylus, 尖筆)의 기울어진 모서리로 부드러운 점토가 눌러짐으로 인하여 췌기-모양의 외형을 띠게 됐으며, 흘림체의 굽은 선(線)들은 점점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낱말-부호들이 쓰여지는 정상적인 방향은 떡어쓰기 없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었다. 위에서 아래로 행으로 내려쓰는 초기 방향으로부터의 이러한 변화는 그 부호들의 일방적인 전환점이었다.

2-2) 확산과 발전.

이러한 발전이 완성되기 전에, 수메르 인의 문자 체계는 기원전 3000 년 경 중반에 메소포타미아로 진입한 셈족 침입자인 아카디아 인들(Akkadians)에 의해 채용된다. 그 쓰기법(the script)을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다른 언어에 채용함에 있어 아카디아 인들은 수메르 인들의 표의 문자들과 그리고 더 복잡한 관념들을 위한 표의문자들의 연결들을 보전하지만 그것들에 상응하는 자신들 아카디아 단어들로 발음한다--다시 말해 빌려 온 글에 자신들의 말을 덧 씌운다. 그러면서도 그 음가(phonetic values, 音價)들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한 류형들의 수메르 인들의 본디 발명들을 훨씬 넘어서서 그것들을 확장시킨다. 예를들어 ba 또는 ab와 같은 열린 또는 닫힌 음절들. 칸(kan), 물(mul), 밭(bat) 등의 수메르 인의 표의 문자(ideograms)들의 보다 복잡한 많은 음절 값(syllabic values)이 음성학적인 수준으로 변이되는

ORIGINAL PICTOGRAPH	PICTOGRAPH IN POSITION OF LATER CUNEIFORM	EARLY BABYLONIAN	ASSYRIAN	ORIGINAL OR DERIVED MEANING
				BIRD
				FISH
				DONKEY
				OX
				SUN DAY
				GRAIN
				ORCHARD
				TO FLOW TO TILL
				BOOMERANG TO THROW TO THROW DOWN
				TO STAND TO GO

BY COURTESY OF ORIENTAL INSTITUTE
TABLE SHOWING THE DEVELOPMENT OF CUNEIFORM SCRIPT FROM PICTOGRAPHS TO ASSYRIAN CHARACTERS

아카디아 인의 췌기 문자에서는 복잡하고 심각한 다(多) 음성어가 증가하기에 이른다. 예를들어 '해'(태양)를 나타내는 본디 그림문자가 'ud'(웃), 'tam'(탐), 'tú'(투), 'par'(빠르), 'lah'(라흐), 'his'(히스) 등의 여러 음절 값으로 읽혀진다. 이렇게 아카디아 인들은 새로운 복잡한 음가들을 그 표의 문자들에게 덧 붙인다. 그래서 '땅' 또는 '산맥'을 나타내는, 본디 세 산 봉우리의 그림이었던 부호가 수메르 인의 음가 'kur' 뿐만 아니라 아카디아 인의 말 'mātu'(땅)와 'šadū'(산)로부터 온 'mat'와 'šad' 음(절)가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오는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후기 아카디아어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ta-am'과 'tam'과 같은 등가(等價) '요소들'(graphies)이 아카디아 인의 썩기 문자의 오랜 역사를 두루 통해 나란히 존재한다.

초기 아카디아 어(the Old Akkadian)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썩족 썩기 문자의 최초 유형은 기원전 2350 년 경의 위대한 아카드 지배자 사르곤(Sargon)의 비문의 예(例)로 보여진다. 그 땅의 남동쪽 수메르에서는 기원전 2050 년 경 라가쉬의 구데아(Gudea of Lagash)에 의해 통일 될 때까지 독립된 도시-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이 특히 수메르 문화의 짧은 출현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 그런 다음 정치 권력은 아카디아 인들에게 결정적으로 넘어가, 기원전 1700 년 경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hammurabi)가 모든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결과, 이제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위대한 영향력있는 중심지로 된다. 함무라비 법전은



초기 바빌로니아 썩기 문자로 쓰여진다. 그러나 변동이 심한 초기 바빌로니아 언어는 덜 영특한 후기로 닷아가는 동안 중기와 새로운(新) 바빌로니아 유형의 언어로 변한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저 북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아수르(Assur)가 시작된다. 특히 초기 아수르인의 썩기문자는 중앙 소아시아의 신민지들과 교

역하는 앗시리아 인들의 기록으로 대부분 남아 있으며(기원전 1950 년 경의 소위 카파도기아Cappadocian 인의 점토 판), 중기 앗시리아 썩기문자는 광범위한 법전과 다른 문서들로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후기(新) 앗시리아 시대는 앗시리아 인의 위대한 권력의 시기였기에 그 글 쓰기는 기원전 650 년 경 니느웨(Nineveh)에 있는 앗스르바니플(Assurbanipal)도서관에 소장된 광범위한 기록들에서 절정을 이룬다.

메소포타미아 외부로의 쉐기문자 글 쓰기 확장은 **이란 남서부 엘람(Elam)** 땅이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접촉하여 그 글 쓰기 시스템을 채용 했을 때인 세 번째 밀레니엄에 시작됐다. 엘람인들(Elamite)의 쉐기문자는 **초기(old) 페르시아 언어**로 단 순화된 **알파벳과 유사한 쉐기문자** 창조를 위한 외부 모델을 인도-유폴로피언 페르시아 인들에게 제공했을 때인, 기원전 첫 번째 밀레니엄까지 계속 이어진다.

메소포타미아 북쪽과 유폴라테스 강 상류 근방의 **후리아 인들(Hurrians)**은 기원전 2000 년 경 아카디아 인의 초기 쉐기문자를 채용하여 그것을 그 당시에 중앙 소 아시아를 침범했던 인도-유폴로피언 **히타이트(Hittites) 인들**에게 건네준다.

두 번째 밀레니엄 동안 바빌로니아의 앳티카 언어는 다소 왜곡된 야만적인 다양함 속에서 근동 전체 안에서의 상호 국제적인 성격을 띤 잡탕언어(lingua franca)로 변하여 쉐기문자 글 쓰기를 문자 소통의 보편적인 매개자로 만들어 버린다. 이 시대의 정치는 거의 배타적으로 그러한 언어와 글쓰기 안에서 행해진다. **쉐기문자는 때로 기원전 1400 년 경의 시리아 해변 가나안 사람들(Canaanite)의 자음 쓰기법에서처럼 변용되거나** 또는 기원전 9 세기에서 기원전 6 세기의 아르메니아 산맥 안의 할디(Haldi)나 우라루트(Urartu) 왕국의 비문에서처럼 단순히 전달되기도 하며, 나아가서 그 언어는 후기(신) 앳시리아 인의 다양한 쉐기문자를 차용한 멀리 떨어진 후리아 인들(Hurrian)과 관련되기도 한다. **아람어가 일반적인 세속 언어로 됐던 때인 기원전 7세기와 6 세기 경의 앳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왕국 몰락 후에** 조차 오히려 퇴락했지만 다양한 후기 바빌로니아 어와 앳시리아 어는 거의 예수님 시대에까지 내려오는 동안 쉐기 문자 언어로 살아 남는다.

// 기원전 13-14 세기 동안 시리아 해변 지금의 라스 샴라(Ras Shamra)인 우가리트(Ugarit) 쓰기 법은 전통적인 점토와 첩필에 근거한 체계를 사용했으나 자신의 언어를 나타냄에 있어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 언어는 모음 a 또는 u 또는 i 가 잇따르는 무성 파열 후음 알랩(voiceless glottal stop aleph)을 나타내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삼십개의 순수 자음 부호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우가리트 인의 쓰기 법은 아람어와 페니키아 어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 기원전 6 세기에는 전통적인 수메르-아카디아어(Sumero-Akkadian) 체계의 복잡성에 다르게 반응한 **초기 페르시아어가** 여섯 개의 표의문자(logogram)와 보조부호들로 완성된 36 개의 단순한 새로운 음절 부호들로 쓰여진다.

2-3) 그 체계

췌기 형태의 부호들은 세 가지 주요한 기능들을 지닌다:

4-2-3-1) 음절문자들로서의 그것들은 낱말 하나 또는 그 낱말의 부분을 소리 요소(phoneme, 음소, 音素)의 수준에서 나타낸다.

4-2-3-2) 표의문자들로서의 그것들은 사전적인 수준에서 전체 하나의 낱말을 나타낸다.

4-2-3-3) '한정사'(determinatives, 限定詞)와 '분류사'(classify, 分類詞)로서의 그것들은 자신이 한정하고 분류하는 단어에게 어떤 직접적인 음성학적 함축도 없이 일련의 의미들을 배정한다.

어떤 음절문자들(syllabograms, 여러 소리를 지닌 부호들, polyphonic signs)은 하나 이상의 여러 발음들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음절문자가 ne, dè, bí, 또는 bil로 그 문맥에 따라서 읽힐 수 있다. 거꾸로 다른 부호들이, 음역(音譯)시 엑센트 또는 문자아래표시들에 의해 지시되는, 분명하게 동일한 소리로 읽혀질 수 있다. 때로 동음어는 특히 수메르 언어 음성체계에 관한 우리의 엄밀한 앎의 결여 탓이기도 하다. 표의문자(logograms)는 여러 다른 의미들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음소적인 함축들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애매함을 분명한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장치들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췌기 꼴 부호의 낱말 하나는 텍스트의 언어와 글쓰는 관습과 전통들에 의거하여 음절적으로 또는 표의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 음절적으로 쓰여진 낱말들의 예들로는 수메르어의 경우에는 'še-er-ha-an'(장신구) 그리고 아카디아어의 경우에는 'ni-ik-nu-kà'(당신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훔쳤다)를 들 수 있다. 예를들어 아래 도식의 'sinig'에서처럼, 표의문자로 쓰여진 부호는 읽는 자의 언어에 근거하여 수메르어적인 šinik 또는 아카디아어적인 bīnu로 읽혀질 수 있다.

The Old Persian Cuneiform Script

		Old Persian			Elamite				Late Babylonian					
		-a	-i	-u	-a	-e	-i	-u	-a	-e	-i	-u		
vowels	-	𐎠			𐎡	𐎢	𐎣	𐎤	𐎥	𐎦	𐎧	𐎨	𐎩	-
	a	𐎠		𐎡			𐎣	𐎤			𐎧	𐎨	𐎩	a
	e													e
	i			𐎡			𐎣				𐎧			i
	u													u
palsals	o													
	ɸ	-K		-a										
	ɸ													
dentals	t			𐎠		𐎡	𐎢	𐎣		𐎥	𐎦	𐎧	𐎨	t
	θ	𐎠												θ
	d		𐎡	𐎢	𐎣			𐎤	𐎥				𐎩	d
	n	-k		𐎡	𐎣		𐎤	𐎥	𐎦		𐎧	𐎨	𐎩	n
labials	p	𐎠			𐎡		𐎣	𐎤	𐎥		𐎧	𐎨	𐎩	p
	f	𐎠												f
	b	𐎠			𐎡	𐎢		𐎣	𐎤	𐎥	𐎦		𐎩	b
	m		𐎡	𐎢	𐎣	𐎤	𐎥	𐎦	𐎧	𐎨	𐎩	𐎪	𐎫	m
sonorants	ɸ	-K			𐎡				𐎥					ɸ
	r	𐎠		𐎡	𐎣		𐎤	𐎥	𐎦		𐎧	𐎨	𐎩	r
	l	𐎠			𐎡		𐎣	𐎤	𐎥		𐎧	𐎨	𐎩	l
	ɸ	-a	𐎡											ɸ
sibilants	s	𐎠			𐎡		𐎣		𐎥		𐎧			s
	z				𐎡	𐎢	𐎣		𐎥	𐎦	𐎧			z
	ʃ	𐎠			𐎡		𐎣	𐎤	𐎥		𐎧	𐎨	𐎩	ʃ
	ʒ	𐎠			𐎡		𐎣	𐎤	𐎥		𐎧	𐎨	𐎩	ʒ
	h	𐎠			𐎡		𐎣	𐎤	𐎥		𐎧	𐎨	𐎩	h

따라서 어떤 텍스트들은 의심할 것도없이 고대에는 수메르어 또는 아카디아어로 무차별적으로 읽혀질 수 있다. 읽기와 의미에 있어서의 불확실함은 문맥에 의해 부분적으로 그리고 쓰기법 자체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류사들과 음성학적인 지시자(indicator)들의 쓰임새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분류사로 쓰일 때 부호 *giš*는 자신들 잇따르는 낱말에게, 순수한 재료, 동물학적인 그리고 식물학적인 류형들, 지명 등 등, 나무들 또는 나무로 된 대상들의 집합을 배정한다. 여성적인 것을 것과 신성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 등 인산의 소유들 또는 조건들을 지시하는 것도 있다. '음성학적인 지시자'는 주로 수메르어에서 사용된 하나의 음절문자이다. 이것은 하나의 표의문자에게 그것의 발음을 제공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덧붙혀진다. 이러한 부호들은 원리적으로 선택적이다. 그러나 전통은, 예를들어 *ú+NAGA+ga+MUŠEN*에서처럼, 그것들의 사용을 상대적으로 협소한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단지 '읽혀'지는 부분들일 뿐인 음성학적인 보충어들은 더 하위의 경우이다). *NAGA*로 음역된 표의문자(어표, *logography*, 어표, 語標)는 그것이 큰 까마귀를 의미할 때는 *uga*로 읽혀진다. 새들의 사전적인 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분류사 *MUŠEN*이 보통 그 단어에 잇따른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발음을 특수하게 하여 애매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음절문자 *ú*와 *ga*가 그 단어에 수반된다. 다른 분류사를 지니는 동일한 표의문자는 다른 읽기에서 다른 의미들을 지닌다. 채소의 경우에는 분류사 *ga*가 수반되어 'naga'(채소 재)를, 식물들의 경우에는 그 부호가 수반되어 'teme'(식물 한 그루, 특히 *Salsola*)를, 도시의 경우에는 그 부호가 수반되어 'ereš'(어떤 지명)을, 그리고 신성한 것들의 분류사가 수반되어 'nidabe'(여신)를 뜻하게 된다. 아카디아어에서는 음성학적인 보충어들이 덜 나타나나 더 다양하다.

비록 췌기 꼴 부호들이 수메르어와 아카디아어에서 동일하지만, 그 부호들은 다른 길들로 사용된다. 수메르어는 고유명사들과 차용어(借用語)들과 결합된 음소들을 나타내기 위해 음절문자를 사용하나, 본질적으로는 표의문자적이다. 전적으로 음절문자들로 쓰여진 수메르어 텍스트들의 보기들은, 아마 교육적인 의도나 그 글쓰기의 표준체계와의 친숙하지 못함 때문에, 이차적이며 그리고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러나 아카디아어는 주로 음절문자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편리한 축약을 위해 표의문자들을 남겨둔다. 기교적이거나 반복적인 텍스트들에서의 표의문자들의 그 숫자가 아주 높을(*high*) 수 있다. 예를들어 전형적인 편지에서는 부호들의 단지 3~5% 만이 표의문자들일 수 있다. 그러나 예언의 긴, 반복적인 목록에서의 표의문자들은 전체 부호 숫자들의 8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 후리아어와 히타

이트어 등 다른 언어들은 음절적인 썬기문자를 사용한다. 히타이트인들은 음절적으로 쓰여진 아카디아인의 단어들을 표의문자들로 사용한다(아카디어 문자들, Akkadograms).

2-4)쓰기법과 음성학.

더 오래된 텍스트에서의 음절문자들은 은연중에 차이나는(underdifferentiated)길로 자음들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단일한 부호가 동일한 조건에서 유성마찰음과 무성 파열음(stop)을 나타낸다 그리고 강한 파열음(emphatic plosive)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부호가 'da'와 'ta'와 'da'를 나타낸다. 언어의 음소 목록과 관련하여 이러한 순수하게 그래픽적인 단순화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어떤 결론도 불가능하다. 수메르어의 논증 가능한 소리 규칙의 존재는 이런 글쓰기 실천을 위해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기원전 2400 년 경의 엠파라(Ebla) 텍스트들에서만 특히 자음 'l'이 선택적으로 생략된다. 대안적인 글쓰기들은 그것이 어떤 음성학적인 의의도 지니지 않는 그래픽 특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속고가 'l'를 나타내기 위해 신호-'l'들을 종종 사용하는 것에 적용될 수 있다. 보다 더 최근의 텍스트들에서는 글쓰기가 충분히 음성학적인 모습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 아카디아어의 경우에는 비교 어원론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예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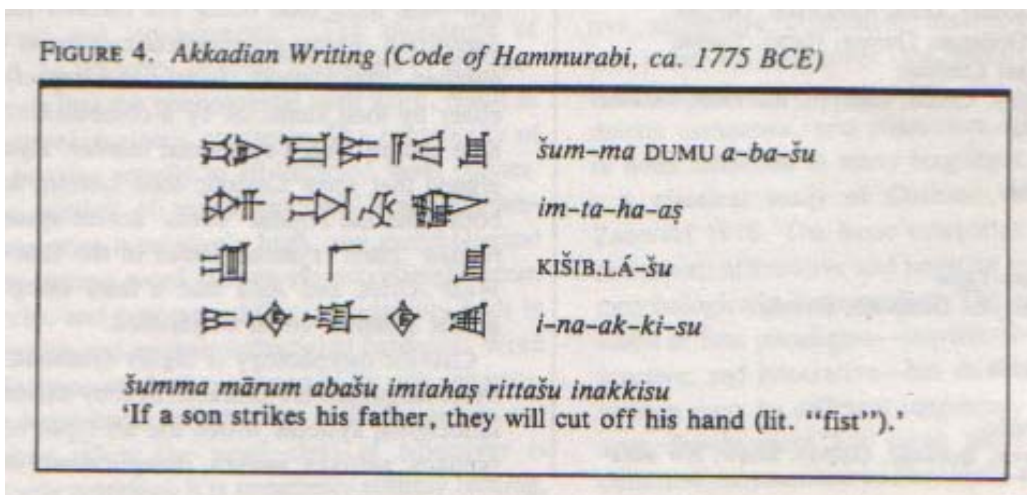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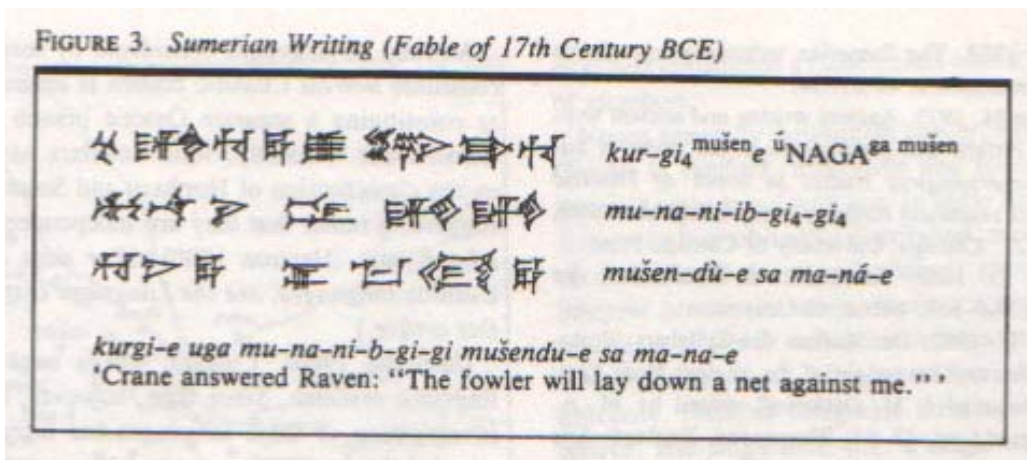
2-4-1)아카디아 텍스트들에서의 셈어족의 후두음(larygeals, 喉頭音) 손실은 그 언어적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반성될 수 없다. 아마 수메르인의 음소 목록의 부재, 그리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부호들의 연이은 결여 때문에. 후두 자음들은 단순히 글쓰기에서 생략될 것이다.

2-4-2)두번째 예외는 음절어 체계의 내재적 제한들로부터 결과한다. 처음과 마지막 자음 군은 직접 표시될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쓰기는 어두(語頭)나 어중(語中)에 삽입되는 모음들을 덧붙여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이론적인 */pras/는 pa-ra-as로 쓰여질 것이다. 드문경우이기는 해도, 특히 초기에, C₁ C₂는 심지어 그 중간 위치에서조차 C₂로 쓰여진다.

2-4-3)마지막으로 아카디아어의 경우에는 몇몇의 경우에 그리고 수메르어에서의 그 쓰기들은 형태음소적인(morphophonemic)표시들을 사용한다. 예를들어 수메르어의 접속법/회구법 동사 접두사는 교체형(alloporphs) 'ha-', 'he-', 그리고 'hu-'와 더불어 모음조화에 예속된다. 초기에 'ha-'는 u를 지니는 음절들 앞에 쓰였으리라. 보다 후

의 텍스트들에서는 꾸준히 'hu-'가 쓰인다.

글쓰기 범례는 아래 도식 3과 4에서 주어진다. 분류사들과 음성학적인 보충어들은 위첨자로 썼으며 엑센트와 아래첨자로 쓰인 것들은 동일한 소리의 신호들과 구분된 것들이다. 그리고 수메르어 사본에 나타난 하이픈을 통해 형태소들을 분리시켰다.








2-5) 수메르어의 독해(Decipherment, 解讀).

췌기 풀 글쓰기의 존재는 보다 더 매력있는 그리고 결코 완전히 잊혀져 본 적이 없는 이집트 상형문자(hieroglyphs)와는 대조적으로 서구 학계에서 잊혀졌다가 17 세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유럽 여행자들에 의해서 재 발견됐다. 1802 년

G.F.Grotesfend는 아카디아어-엘람어-페르시아어 세 언어로 쓰인 비문을 읽는 데 성공했다. 아카디아어를 포함한 급진전된 독해 과정은 1857 년에 완결된다. 그 해 H.C.Rawlinson과 Edward Hincks와 W.H.Fox Talbot와 Jules Oppert는 런던에 소재하는 아시아왕립사회(Royal Asiatic Society)에 동일한 텍스트의 독자적인 밀봉된 번역들을 제출한다. 개봉된 네 가지 번역들은 본질적으로 일치했다. 현재 연구에서의 췌기 풀 부호들의 의미들과 음성학적 형태들의 규정은 글쓰기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자국어 낱말 목록들에 철저히 근거한다. 만 여 개의 낱말들이 부호 모양별로 또는 주제별로 배열돼 있는 수메르-아카디아 2 개 어 사전 모음집들은 학교연습으로부터 재구성됐다. 대부분 완성된 형태로 기재된 사전목록들은 아래 도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 행을 포함한다: a)일련의 기본 음절문자들에 의한 수메르어 단어들의 음성학적인 기술들; b)편리하게 작은 대문자로 옮겨써진 그에 상응하는 어표(logography, 語標); 그리고 c)음절적으로 쓰여진 아카디아어 번역.

FIGURE 1. Sumero-Akkadian Lexical Entries

(a)	(b)	(c)
<i>mu-še-en</i>	 (MUŠEN)	<i>iš-ṣu-ru</i> 'bird'
<i>gu-up</i>	 (DU)	<i>ú-zu-uz-zu</i> 'to stand up'
<i>pe-eš</i>	 (ŠAxA)	<i>e-ru-ú</i> 'to be pregnant'
<i>na-qa</i>	 (NAGA)	<i>uh-hu-lu</i> 'vegetable ashes'
<i>ši-ni-ik</i>	 (ŠINIG)	<i>bi-i-nu</i> 'tamarisk tree'

아카디아어 낱말들의 의미들은 밀접히 관련된 셈어족의 언어와의 비교에 의해서 제시되며 그리고 텍스트 상호 분석에 의해 검증된다. 음절문자들의 음성학적인 형태들(shape)은 처음에 외래어의 음역들을 통해 확정됐으며 연이어 셈어 소리와의 상호 대조에 의해 순화됐다. 예를들어 모두 /kalbu/'dog'를 나타내는 ka-al-bu와 kal-bu와 같은 흔한 대안적 철자들이 그 증거다. 동일한 음절문자들은 수메르어 낱말들의 음소적 형식들을 제공하는 하는데 쓰여진다. 그러나 소리들의 이런 상호 대조 제시에 있어서의 왜곡은 수메르어의 음소 목록의 덜 엄밀한 규정에 기인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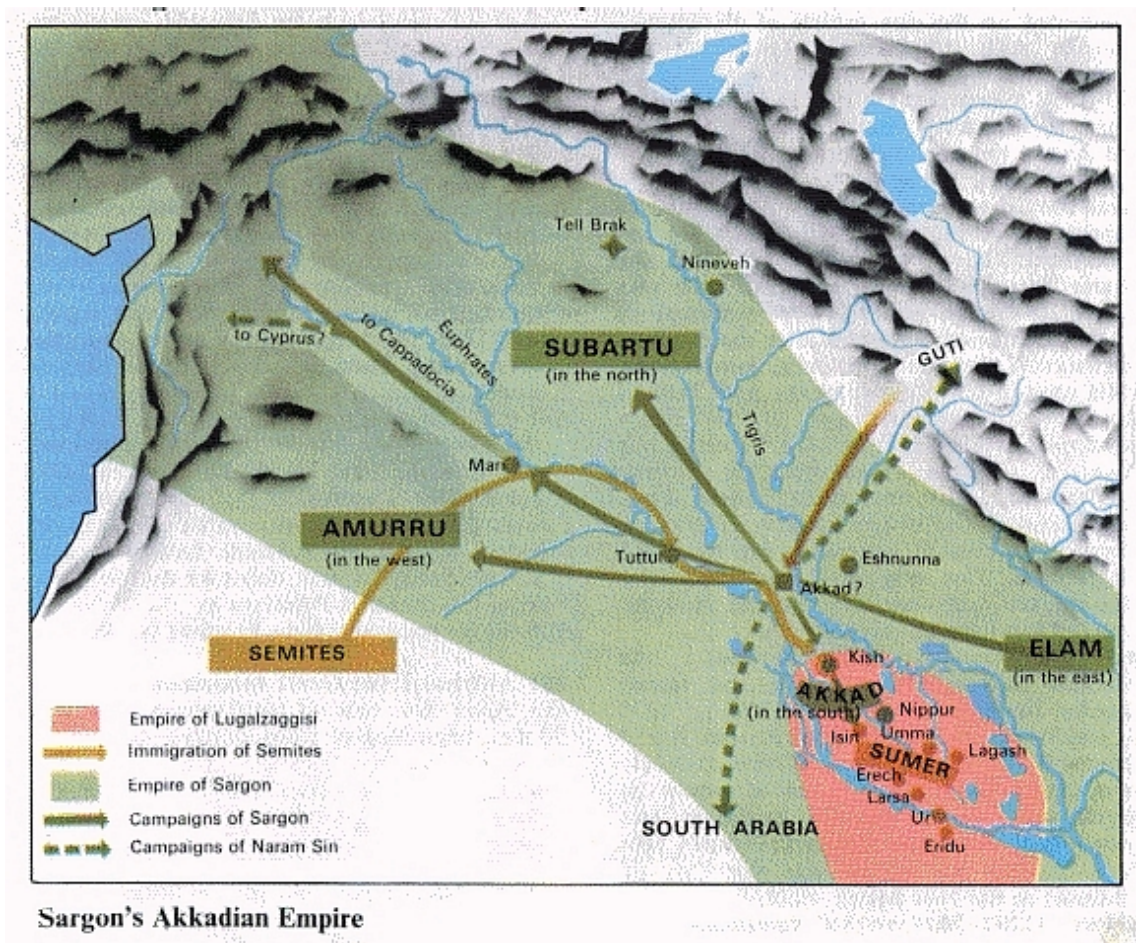
'한정사'(determinatives, 限定詞)와 '분류사'(classify, 分類詞) 그리고 음성학적인 부호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의문자(ideogram)들을 지니는 췌기문자의 주요 유형은 이

집트와 상형문자적인(hieroglyphic)히타이트어와 미노아-미케네어(Minoan-Mycenaean)와 원시-엘람어(Proto-Elamite)와 원시-인도어(Proto-Indic)와 중국어처럼 음절어(a word-syllabic) 체계이다. 이것들가운데 수메르어 시스템이 가장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 어느 정도에서 이 수메르어가 다른 언어의 발원시켰는지 또는 다른 언어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글이 공통의 단일한 언어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여러 언어를 자신의 근원으로 시작됐는지에 관한 문제와 결부되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페니키아인의 자음 쓰기법(script)는 우가리트어와 고대 페르시아어가 췌기 꼴이라는 외면적인 비슷함만을 유지하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구성된 새로운 위상학(topological)적인 패턴을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3)앗카드어[Akkadian (language)]

3-1)앗카드(Akkad)

앗카드는 바빌로니아 문명의 고향이었던 이라크 중부 지역의 북쪽 부분을 가리키는 고대 이름이다. 지질학적으로 그것의 경계들은 심지어 그 지역의 남쪽 부분인 Sumer에 대해서 마저 선명하게 그어질 수 없다. 기원전 약 2000 년 경부터 그 전체 땅의 지배자들은 스스로들을 “Sumer와 Akkad의 왕들” 이라고 불렀다. 개략적으로 앗카드의 위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서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지대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북쪽 한계는 현대 Fallujah와 Baghdad 선 위 쪽에 놓여 있으리라. Akkad와 그 북쪽 이웃 Assyria 사이의 티그리스 강 경계는 지류 Adhem이 티그리스와 합류하는 지점인 위도 북위 약 34 도에 놓인다. **Akkad** 라는 이름은 기원전 약 2300 년 경 정복자 셈족인 **Sargon I** 세에 의해 건설된 도시Agade로부터 취해졌다. 최소한도 이 시기부터 이 북쪽 지역의 거주민들은 셈족들이 우세했으며, 현대학자들에 의해 불리워지는 것처럼 그들에 의해서[도] Akkadian 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이 그들의 말(speech)이었다(췌기문자 스크립트로



보존된 가장 오래된 셈족 방언). Akkad의 지역 이내에 바빌로니아 문명의 몇 몇

주요한 중심지들, 곧 **Babylon** 그 자신과 Kish와 Borsippa와 Cuthah와 Eshunna와 Sippar와 Akshak 등이 놓여 있다.

3-2)앗카드어(Akkadian language)

앗카드어는 기독교 시대 이전 3 천년 동안 (현재 이라크) 메소포타미아의 언어였다. **Assyrian** 앗시리아어은 **Akkadian**아카드어의 한 방언이다. 그러나 그 전체 언어가 한 때 “Assyrian”으로 지시됐다. 왜냐하면 19 세기 초반부 메소포타미아의 답사들은 Babylonia에서의 비교할만한 자료들의 발견 오래 전에 Assyria로부터 비문적인 자료들의 빛이 보였기 때문이다.

앗카드어는 서부 셈어 그룹의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와 Amorite와 Ugaritic과 (Syriac을 포함하는)Aramaic와 Ethiopic과는 대조적으로 셈어의 동부 그룹에 자주 배정된다.

앗카드어의 가장 오랜 재원들은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시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언어인 수메르어로 쓰여진 비문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차용어들과 개인이름들로 기원전 세 번째 천년 시작에 나타난다. 그 셈족 지도자 Sargon 하에서 앗카드 왕조의 흥기와 더불어 앗카드어는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페스리아 만에 이르르면서, 사르곤 제국의 팽창된 전체에서 폭넓게 퍼졌다. (약 기원전 2000 년 경의) Old Babylonian 시기 시작 즈음, Ur의 세 번째 왕조 하에서의 수메르인의 재흥의 기간 동안 잠시의 퇴행 후에, **앗카드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유일하게 말해지는 언어로 된 반면 **수메르어**는 신성한 문헌의 글로 쓰여진 언어로서 계속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Sargonic-이전 시기와 Sargonic 시기와 Ur III 시기에 확인되는 앗카드어의 세 가지 가장 이른 무대들이 일반적으로 **Old Akkadian** 이라는 용어 하에 포함된다. 세 번째 Ur 왕조 몰락 후에, 고대 앗카드어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Assyria에서 말해지는 **앗시리아어**Assyrian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Babylonia에서 말해지는 Babylonian**바빌로니아어** 등 두가지 방언으로 갈라진다. 이 두 방언들 각 각은 Old와 Middle과 New 등 세 연대 하위 구분으로 속고된다.

3-2-1)앗시리아어와 바빌로니아어(Assyrian and Babylonian)

앗시리아 방언은 앗시리아인들과 소 아시아 원주민들 사이의 편지와 상업적인 기록들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비문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중기 앗시리아어** 시기에는 법전들과 계약들과 편지들이 앗시리아 방언들로 쓰여졌지만, 역사적인

비문들은 바빌로니아 방언들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앗시리아인들이 전체 근동을 휩쓸고(held sway over) 다닐 때인 **New Assyrian** 시기에서는 바빌로니아 방언이 거의 전체적으로 취해졌다. 그 시기에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비문들과 미문학(belles-letter)과 종교적인 문헌은 모두 바빌로니아어로 쓰여졌다. 그러나 앗시리아 방언은 법적인 계약과 편지들에서 계속 사용됐다.

바빌로니아 자체 외부로 바빌로니아 방언의 확장은 바빌로니아어가 근동의 lingua franca가 되었을 때인 그 중기에 절정에 다달았다. 상부 이집트에 있는 Tell-el Amarna에서 발견된 이집트 왕들의 교신 옛 기록은 이집트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소 아시아와 앗시리아 사이의 상호 국제적인 관계들의 쓰임새를 증거한다. 마찬가지로 바빌로니아어는 지금 이란의 남부 지역인 Elam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New 바빌로니아** 시기에서는 다른 셈어인 아람어가 바빌로니아어 대신에 그 나라의 말해진 그리고 글로 쓰여진 언어로, 그 후자(바빌로니아어)를 수학과 천문학의 학식있는 문헌에 한정시키면서, 들어섰다. 기독교 시대에 이르러 바빌로니아어는 전체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 바빌로니아어에 관한 모든 앎은 19세기 전반부에서의 해독에 의한 그것의 회복 전까지 상실됐다.

//**앗카드어(Akkadian)**는 기독교-이전 시기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말해진 그리고 글로 쓰여진 셈어이다. 앗카드어의 다양한 방언들로 쓰여진 풍부한 문서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다. 그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Amorite 아람어와 같은 그런 서부 셈어와는 구분된 동부 셈어로서 보통 분류된다. “Akkadian”이라는 이름은 기원전 세 번째 천년 중반에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셈어로 말하는 왕조의 자리인, Akkad 라는 도시로부터 파생된다. 종 종 고대와 현대 양자의 시기에 그 언어는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주요한 방언들로부터 Assyrian 또는 Babylonian 이라고 불리워졌다.

3-2-2) 들어가기

3-2-3) 세 번째 천년의 앗카드어

3-2-4) 두 번째 천년 초기의 방언들

3-2-4-1)Old Babylonian

3-2-4-2)Old Assyrian

3-2-5) 두 번째 천년 후기의 방언들

3-2-5-1) “Standard Babylonian”

3-2-5-2) Middle Babylonian/Assyrian 그리고 주변 방언들

3-2-6) 첫 번째 천년의 앗카드어

3-2-6-1) Neo-Babylonian 그리고 Neo-Assyrian

3-2-6-2) Late Babylonian

3-2-2) 들어가기.

앗카드어(Akkadian)는 2,600 여 년을 넘는 기간 동안 펼쳐진 텍스트들에서 확인되는 가장 오래 알려진 셈어이다. 그 언어는 쓰기법을 오랜 동안 폭 넓게 (extensive) 사용했던 고도로 발전된 그리고 역사적인 마인드를 지닌 문화의 탈 것이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쓰기법으로 쓰여진 문서들은 파피루스와 같은 그런 보다 더 손상받기 쉬운 재료 보다 오히려 사실적으로 파괴될 수 없는 점토판들 위에 일반적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아카드인의 텍스트 문서는 문학과 종교적인 작품들과 그리고 아카드어와 수메르어의 낱말들의 목록들과 문법적인 형식들과 다른 학식있는 편찬들과 그리고 정치와 법과 경제적인 그리고 사적인 기록들을 포함하여, 우리들이 어느 고대 셈어를 위해(for)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것이다(아카드어 텍스트들의 충분한 개관을 위해서는 HKL과 Reiner 1978을 보라).

기원전 세번째 천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앗카드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셈어군이 나 다른 어떤 알려진 언어 군과도 친족성을 띠지 않았던 언어를 지닌 수메르인들과 나란히 살았다. 수메르어는 일찌기 기원전 약 3000 년 부터 텍스트들에서 확인되며 그리고 그것은 아마 약 기원전 1700 년 또는 더 이후까지 말해진(spoken) 언어로서 생존했다. 수메르인들과 앗카드인들 사이의 관계는 고대 로마인들과 중세 유럽인들 사이의 그것으로 비교되어 왔다: 수메르인의 문화와 종교와 학문과 언어는 앗카드인의 언어와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von Soden 1960). 예를들어 근원적으로 수메르어의 글을 쓰기 위해 사용됐던 췌기문자 글쓰기 체계가 아카드어의 글을 쓰기 위해 채용됐으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정을 거쳐 그것은 2,500 여 년을 넘게 사용 돼 왔다. 본디 아주 많은 갯 수의 기호(signs)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글쓰기 체계는 기원전 2000 여 년 경까지 대략 600 여 개의 기호들로 감소됐는데, 이것들 중 많은 것이 그 근원에 있어 그림문자(pitographic)적

이었던 반면 다른 것들은 낱말들의 편의 도식적인 표현(representations)들이었다. 점토판들에 첩필로 새겨진 그 기호들은 특징적으로 “쐐기형식”(cuneiform, wedge-shaped, 쐐기모양을 지닌) 모습을 점차적으로 획득했다.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값을 문맥 안에서 [하나] 가리킴에도 불구하고(with) 그 기호들은 여러 값들을 자주 지니는데, 그것들은 (“king”, “old”, “come” 등의) 낱말들을 나타내거나 또는 낱말들을 음성학적인 글로 쓰기 위해 사용된 음절들(ba, ab, bab, 등)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이런 글쓰기 체계의 복잡함은 전문적인 서기관과 학자 부류가 그것을 사용했다는 한계(restriction)에서 기인하기는 하나, 이들의 손에서 그것은 학식있는 그리고 기록을-유지하는 천년 전통의 도구가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동일한 체계는 Hurrian과 Hittite와 Urartian과 같은 다른 언어의 글을 쓰기 위해 차용됐다.

앗카드인의 언어와 문화는 고전기와 중세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또는 잊혀졌다. 종종 격리된 쐐기문자 텍스트들이 기원후 17세기와 18세기에 유럽에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앗카드어 텍스트들의 발견과 출간과 해독은 기원 후 19 세기의 중반과 후반 부의 성취물들이었다. 이 해독과 관련되는 주요한 인물들은 독일인 G.F.Grotesfend와 아일랜드인 E.Hincks와 영국인 H.C.Rawlinson을 포함했다. Old Persian의 해독에 있어서의 앞선 진보 위에 기초를 두고 (Behistun 비문과 같은 그런) Akkadian/Old Persian/Elamite 세 가지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들과 더불어 시작한 이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그 앗카드어 비문들은 아랍어와 히브리어의 친족성을 띤 셈어 하나를 나타내며, 그 기호들은 여러 값들을 지니고, 그리고 그것들은 (히브리어 스크립트나 또는 아랍어 스크립트와 같은) 단순한 자음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음절들 또는 완성된 낱말들을 나타낸다고 1840년대와 1850년 대에 규정했다. 일단 기호 값들의 최초 확인(identification)이 이루어지자, 텍스트들의 더 나아간 해석이 1840 년에 Nineveh에서 발견된 기호 목록들과 낱말 목록들에 의해서 그리고 히브리어와 아랍어의 어휘소(lexemes)들과 많은 앗카드어 어휘소들의 비슷함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 1850년 대까지 역사적인 텍스트들의 공정하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포괄적인 사전학에 대한 그리고 앗카드어의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텍스트적 저작의 출간과 해석에 대한 더 나아간 탐구가 이루어졌다. (해독의 역사에 대해서는 Kramer 1963: 6-32를 보라).

자신의 긴 확인의 역사 동안, 아카드어는 자연스레 변화들을 겪었으며, 그것의 본토와 그리고 그것이 쓰임새가 확장된 다른 언어학적인 지역들 이 양자에서 그것의 다양한 방언 형식들을 구분하는 것이 습관적이게 됐다.

이어지는 단락들은 이런 전개를 개괄할 것이다.

3-2-3) 기원전 세번째 천년의 앓카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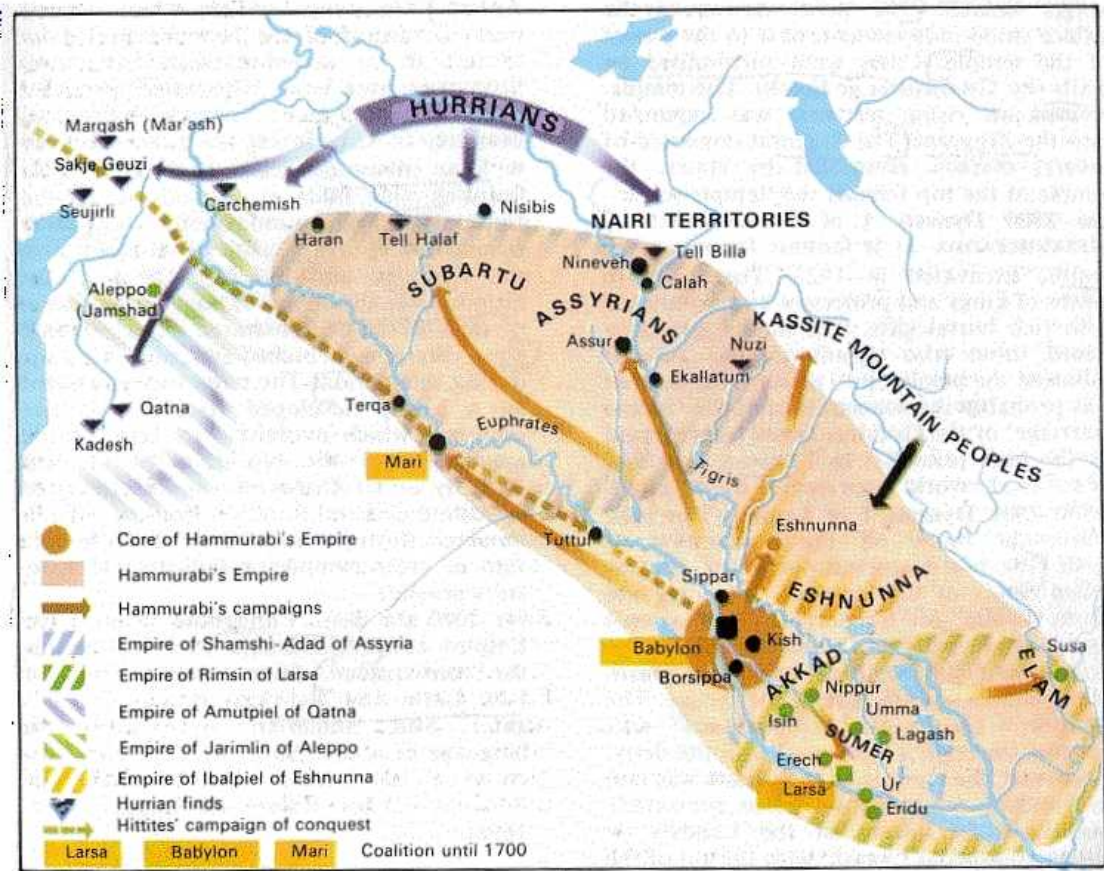
앓카드어의 역사에 있어서의 첫 무대는 Old Akkadian 시기이다. 그 언어는 기원전 약 2600년 전 Fara 시기의 텍스트들에서 발견된 사람 이름들에서 처음 확인된다(Biggs 1967). 그러나 약 기원전 2350년부터 기원전 1950년까지에서 우리들은 고대 앓카드어의 글로 충분히 쓰여진 텍스트들을 발견한다(OAkk; Gelb 1957). 이 기간 내에서 가장 많은 광범위한 텍스트들을 생산하는 시기는 Akkad의 Sargon 왕조의 시기이다(기원전 약 2350~2150까지). 이에 앞선 시기에서 우리는 단지 부분적인(occasional) 텍스트들을 지닐 뿐이며, 그리고 그 이후의 [고대 앓카드어] 시기에는 공식적인 문서들에 있어서의 수메르어의 사용에 의한 일시적인 귀환이 있었다. 몇몇 종교적인 텍스트들을 예외로하면, 이런 고대 앓카드어 글쓰기들은 실로 ‘문어’(literary, 문학)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없는데, 그것들은 주로 경제와 행정과 법적인 텍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왕족과 사적인 개인들의 역사적이고 봉헌적인 비문들과 편지들로 주로 구성된다. 글쓰기 체계에는 후에 앓카드어 음소들의 표현에서 지니게 될 엄밀함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최초 상동(homorganic, 相同)적인 유성 폐쇄음과 무성 폐쇄음들이 여전히 서로 기호적으로(graphically) 구분되지 않았고(예를 들어 동일한 기호(sign)가 음절들 da, ta, ʔa 등을 글로 쓰기 위해 사용되곤 했으며), 모음들과 결부된 폐쇄 후음을 나타내는 후대의 aleph 기호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자음 반복(doubling)과 모음 길이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언어 역사가와 비교학적인 셈어주의자(semitist)에게 고대 앓카드어 텍스트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후에 다른 음소들과 합쳐지는) 셈어적인 š와 ‘의 현존 그리고 후대의 모음 축약(contraction)의 부재 그리고 생산적인 쌍수(dual)의 쓰임새와 같은 그런, 후에 상실됐을 그 언어의 초기 음성학적이며 형태론적인 특징들을 보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2-4) 두번째-천년 초기의 방언들

3-2-4-1) Old Babylonian(고대 바빌로니아어).

두번째-천년 텍스트들에서 우리는 남부 앓카드어(Babylonian)와 북부 앓카드어(Assyrian) 사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방언적인 차이를 발견한다. 가장 이른 남부 방언 형식인 Old Babylonian는 기원전 1950년부터 Babylon의 Hammurabi 왕조 말기 약 기원전 1530년까지 날짜가 매겨지는 텍스트들에서 발견된다. 함무라비 자신과 그리고 그의 직접 선행자들과 계승자들의 시기는 특별히 중요하다. 왜냐

하면 그 시기는 왕족 비문과 사적인 비문과 편지들과 사업과 행정적인 문서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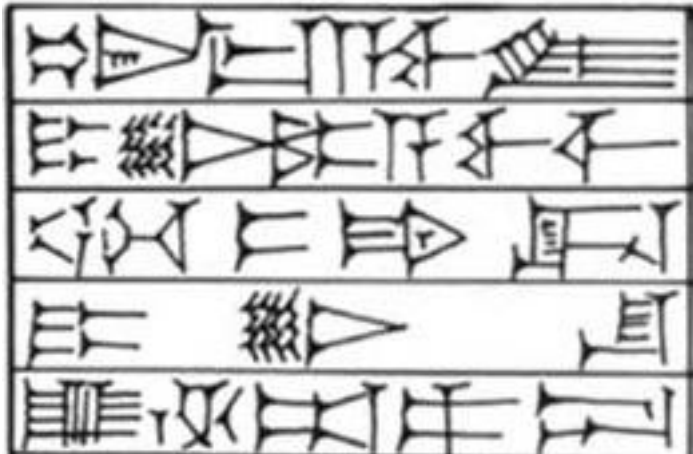


The Empire of Hammurabi of Babylon

글쓰기에 영향을 미친 아카드어 글쓰기의 세심한 새로운 관청(chancery)양식의 확립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음절적인 글쓰기가 어표(logographic, 語標)적인 글쓰기 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됐으며, 고대 아카드어에 출몰한 많은 기호들이 현실적인 쓰임새에서 탈락했다: 어두(initial, 語頭) 유성 폐쇄음과 무성 폐쇄음과 연구개조음(emphatic)적인 폐쇄음을 구분하기 위한 예비적인 기준들이 취해졌고, aleph를 나타내는 새로운 수단이 고안됐으며, 규범적으로 반복되는 자음들이 그림 문자적으로(graphically) 나타내졌다. 고대 바빌로니아어 자체 안에서의 지역적인 하위 방언적인 특질들이 Mari와 Elam과 Diyala 지역과 이외의 다른 곳에서 분별될 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문어적 생산성의 시대였다: 서사시들과 찬양시들과 기도들이 고대 바빌로니아어의 다소 보다 더 시원적인 형식(소위 찬양시-서사시적인 방언: von Soden 1931033; Groneberg 1971)으로 쓰여졌다. 비로 이 고대 바빌로니아어가 그 언어의 나머지 역사를 두루 통한 이상적인 표준문어어로 남게 된다.

내적 일관성과 후대 문어에 미친 영향 때문에 **고대 바빌로니아어**는 일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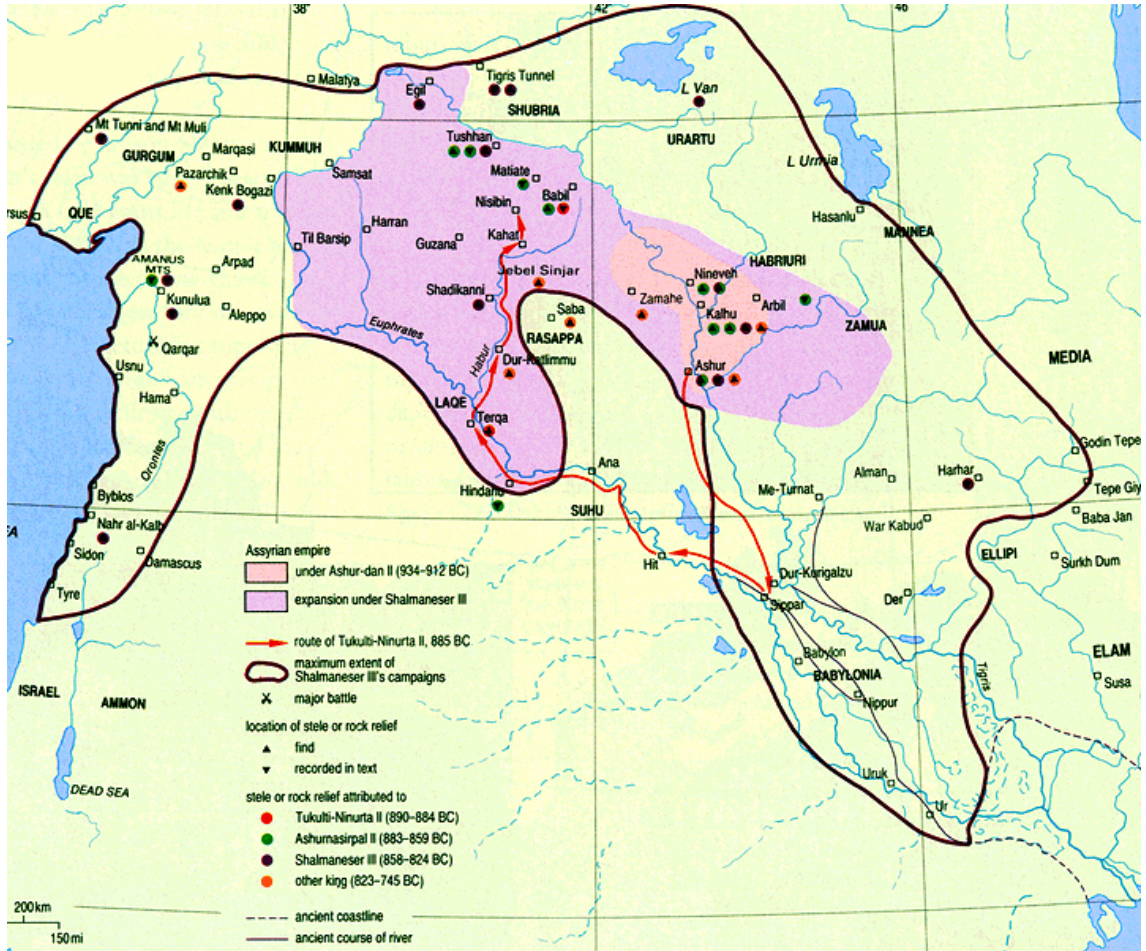
아카드어의 고전 무대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그것의 특징들에 관한 간략한 기술은 Classical Akkadian의 특징적인 원리를 가리킬 것이다.



아카드어의 음소적인 목록은 고전 아람어와 같은 다른 셈어의 그것과 비교 해 볼 때 감소됐다. 모음들은 길고 짧은 a, e, i, u을 포함하며 자음들은 ʔ(aleph), b, d, g, ḥ, y, k, l, m, n, p, q, r, s, š(šade), š(šin), t, t̄(tet), w, z이다. 모음들의 발음은 라틴어나 독일어에서의 모음들의 그것과 비슷하며,

자음들의 그것은 (폐쇄 후음)ʔ과 (독일어 ach의 ch와 같은 연구개음) ḥ와 (sh =)š와 연구개음화된 또는 “연구개조음적”(emphatic)인 자음들 q, s, t를 제외하면 영어를 닮았다. 명사 어근과 동사 어근(roots)은 일반적으로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졌다 (triconsonantal). 동사들은 네 가지 주요 어간(stem)에 따라 굴절(conjugated)된다: 근본 어간, (히브리어 Piʿel에 상응하는 그리고 복수성 또는 강도(intensity)를 가리키는) 반복되는 어근 자음을 지니는 어간, 삽입어 š를 지니는 사역 어간, 그리고 삽입어 n을 지니는 수동 어간. 이런 어간들 각 각과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파생된 다른 어간들은 다음 형식들을 지닐 수 있으리라: 현재 또는 지속(durative), 과거 또는 시점(preterite or punctual, 순간), 완료, 비(非)시간적인 상태(atemporal stative), 명령, 부정형(infinitive, 不定形), 능동분사와 수동분사. 명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는데, 여성은 보통 형태소 -t에 의해서 표시된다. 명사는 단수와 복수를 지니며 그리고 보다 이른 시기에 규칙적으로 사용됐던 쌍수(dual)의 흔적이 남아있다. 다른 끝 모음들(또는 격 어미들: -u, -i, -a)에 의해 표시되는 세 가지 격들(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들이 있다. 대부분의 격 어미들은 마찬가지로 고대 바빌로니아 시기 후에 아카드어에서 사라진 특색인 비(非)기능적인 끝(final, nonfunctional) -m(“mimation”)을 포함한다(Reiner 1966과 1970; von Soden GAG; Reimschneider 1977: Caplice 1988).

3-2-4-2) Old Assyrian(고대 앓시리아어).



비록 고대 앓시리아어가 고대 바빌로니아어와 동시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발견된 고대 앓시리아어 텍스트들은 보다 제한된 시기(기원전 1950~1750)이내에서 글로 쓰여졌다. 수도 Aššur로부터의 단순한 주문과 몇몇의 왕궁 비문들 이외의 모든 고대 앓시리아어 텍스트들은 Külterpe와 그리고 서부 Anatolia의 다른 앓시리아인의 상업 식민지들에서 발견된 편지들과 사업문서들이다. 글쓰기 체계는 남쪽에서 사용됐던 것 보다 더 제한된 일련의 기호들을 지니며, 그리고 그 외부 형식에 있어서 보다 더 시원적이다. 기호들은 마찬가지로 덜 정보적이다 (informative): 고대 아카드어에서처럼 어두 상동(homorganic, 相同)적인 유성 폐쇄음과 무성 폐쇄음이 여전히 동일한 기호에 의해 나타내지며, 자음 반복이 규칙적으로 나타내지지 않는다. 그 언어는 마찬가지로 특히 모음 축약에 저항한다는 점에 있어 고대 바빌로니아어 보다 더 보수적이다. 모든 시기들에 있어서의 앓시리아어의 지속적인 특색은 소위 앓시리아어 모음 조화이다: 열린 음절에서의 짧은

a는 이어지는 음절의 모음에 동화된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어 *išbatu*, *ittasi*의 앓시리아어 등가어는 *išbutu*, *ittiši*이다. 모든 시기의 앓시리아어 문어 텍스트들은 수입된 바빌로니아어 텍스트들의 필사본들이든 또는 (앓시리아 왕들의 증가되는 긴 비문들을 포함하여) 앓시리아 자국 내에서 작성된 것이든 일반적으로 종종 문법적인 Assyrianisms을 지닌 채 바빌로니아 방언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다(Hechker 1968을 보라).

3-2-5) 두 번째- 천년 후기 방언들

3-2-5-1) “Standaed Babylonian”(표준 바빌로니아어).



함무라비 왕조의 몰락(약 기원전 1595년 경) 후에 시작됐던 Babylonia의 Kassite 점령이 문어적인 행위와 다른 서기(scribal, 書記)적인 행위들을 단절시킨 결과 두 번째 천년의 후반부는 직접 텍스트로 남아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썩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대 바빌로니아어의

문어적인 전승의 이동을 포함하여, 아카드어와 문헌 역사에 있어 분명히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추측컨대 몇몇 텍스트들은 최소한도 부분적으로 신학적이란 이유에서 폐기됐으나, 다른 텍스트들은 텍스트들이 아카드어의 글로 쓰여졌던 한, 규범적으로 남아있는 새로운 그리고 표준화된 “기준적인”(canonical) 형식들로 재형성된다(von Soden 1953). 이런 문어적인 텍스트들은 고대 바빌로니아 문어를 느슨한 모델로 한 특별한 문어적 “방언”인 “표준 바빌로니아어”(Standard Babylonian, 독일어로는 jungbabylonisch) 라고 보통 불려지는 형식의 아카드어로 나타내졌다. 고대 바빌로니아어로부터의 표준 바빌로니아어의 기록할만한 대부분의 일탈은 명사와 대명사에 있어서의 mimation의 상실과 그리고 주격과 목적격 단수 격 어미들의 -u로의 환원과 복수의 모든 격들의 -ī 또는 -ē로의 환원이다. 비록 이것들에 있어 그리고 때로 다른 길들에 있어 점차 그것으로부터 일탈해가는 동시대의 말해진 언어에 의해 영향을 입었다고는 하더라도, 표준 바빌로니아어는 아카드인의

문어적인 생산이 끝나기까지 거의 모든 문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작품들을 위한 규범(norm)으로 본질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비록 나머지 두 번째 천년 동안 그 갯수에 있어 부족하기는 해도, 표준 바빌로니아어로 쓰여진 텍스트들은 그 이후로 특히 기원전 8 세기와 7 세기에 증가한다. Nineveh(기원전 약 625 년)에 있는 Assurbanipal에 의해 모아진 그리고 Layard와 Rassam과 다른 자들에 의해 발굴된 도서관은 그러한 문어적인 텍스트들의 특히 부유한 재원이다.

3-2-5-2) Middle Babylonian/Assyrian 중기 바빌로니아어/앗시리아어 그리고 주변 방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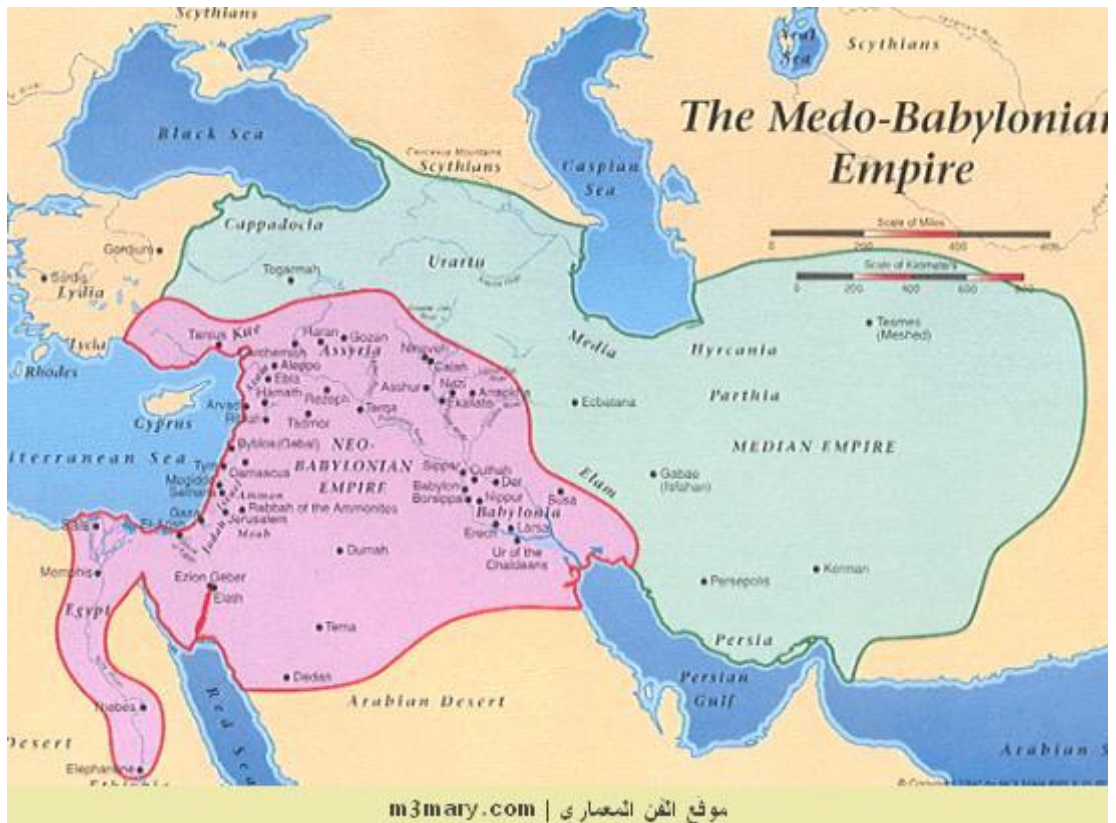
주로 문어적 방언이었던 “표준 바빌로니아어”와는 대조적으로, 중기 바빌로니아어와 중기 앗시리아어는 두 번째 천년의 후반부(약 기원전 1530~1000)에서의 남부와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말해진(spoken) 토속 방언이다. *중기 바빌로니아어*(Aro 1955와 1957)는 편지들과 계약들과 같은 그런 문서들로 오늘날 오히려 빈약하게 확인된다. *중기 앗시리아어*(Mayer 1971)는 법전(cf. ANET, 180-8)과 제의들과 일련의 하렘(harem)명령들과 편지들과 몇몇 궁전 비문들 다소 더 잘 확인된다. 이집트와 시리아-팔레스타인과 Anatolia와 이란과 그리고 Nuzi와 같은 북 메소포타미아 Hurrian 중심지들에서 상호 국제적인 lingua franca로서 아카드어가 사용됐던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el-Amarna와 Ugarit와 Boghazköy와 Nuzi와 같은 그런 장소에서 발견된 텍스트들은 아카드어 재원들이 서기관들의 각기 지역적인 언어의 국면들을 포함하는 소위 아카드어의 “주변 방언들”(perpheral dialects)을 확인 해 준다.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왔든 주변 지역들로 왔든 이 시기의 텍스트들은 ㄱ)자음이동—예를들어 치음 또는 다른 치찰음 앞의 š는 l로 된다(예를들어 고대 바빌로니아어 išten, ušziz는 중기바빌로니아어/중기앗시리아어 ilten, ulziz로 된다)에 의해, ㄴ)mimation 상실에 의해, 그리고 ㄷ) 두 번째 천년의 끝에 향하면서 기능적으로 구분된 격 어미들의 상실에 의해 선행지역의 텍스트들과 아주 놀랍게 구분된다. 마찬가지로 중기 바빌로니아어와 중기 앗시리아어 사이의 기록할만한 어떤 다름이 마찬가지로 있다: *중기앗시리아어*는 ㄷ)모음조화—예를들어 어두 wa-는 u-가 되고 측음 앞의 š는 s가 된다(예를들어 고대바빌로니아어 wašbat는 중기 앗시리아어에서 usbat로 된다)와 그리고 ㄹ)삼인된 t의 선행하는 q로의 연구개음화 또는 부분적인 동화(바빌로니아어 iqtanarrab = 앗시리아어 iqtanarrab)를 반영한다.

3-2-6) 첫 번째 천년의 앓카드어(First-Millennium Akkadian).

3-2-6-1) Neo-Babylonian과 Neo-Assyrian(약 기원전 1000~기원전 625).



앗시리아 왕국의 함락과 더불어 끝나는 이런 방언들은 주로 편지들과 계약들에
서 확인된다. 비록 신-앗시리아어가 마찬가지로 책(treaties)들에 그리고 종종 문어
적이고 종교적인 텍스트들에 사용됐기는 해도 말이다. 이 양자 방언들은 특히 격
어미들의 상실과 그리고 아람어 전치사 la, “to, from”의 채용과 그리고 아람어
nahna의 영향 하에서 nīnu “we”를 anīnu로 교체하는 것에 있어 점증적인 아람어
의 영향을 보여준다. 앓시리아어는 계속해서 바빌로니아어 보다 더 변화에 저항
한다. 그래서 끝 위치들에 있어서의 또는 hollow 동사들에 있어서의 모음축약이
연이어지는 ia, iu, ua의 경우 이루어지지 않는다(예를들어 바빌로니아어 bikā, annū,
ikān은 앓시리아어에서 bikiā, anniu, ikūan으로 축약되지 않은 채 남는다).



3-2-6-2) Late Babylonian (기원전 615~기원후 1세기).



이것은 Chaldean과 Persian과 Seleucid-Arsacid 시기들의 언어이다. 심지어 그것조

차 *아카드어*에 의해 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왕궁 비문들과 편지들과 경제문서들에서 발견된다. (기원전 333년) Babylon의 마케도니아인의 함락 후에 바빌로니아인의 상류 계층에 의해 *그리스어*가 점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카드어의 문서들이 점점 드물게 되면서 그 문서들의 사용이 헛되이 오랜 길들을 보존하고 조장하려고 시도했던 쇠퇴하는 성전 모임(*complexes*)들에 주로 한정된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바로 그 췌기문자 문서들은 기원후 50년까지 날짜가 매겨지며 그리고 대부분 천문학적인 주제들에 관련된다.//

///**앗카드어(Akkadian)**는 기원전 세번째 천년 초기부터 기원전 첫 번째 천년까지 현대 이라크와 시리아와 그리고 몇몇 인근 지역들에 상응하는 지대에서 말해졌던(spoken) 썬어이다. 그 용어는 Babylonian과 Assyrian 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방언들을 포괄한다. 이것들은 Old(약 2000 ~ 1500 기원전)와 Middle(1500~1000 기원전)과 Neo-(1000~500 기원전) 이라는 발전의 세 가지 넓은 무대들을 겪는다. 그것들의 선행자는 Old Akkadian(2500~2000 기원전)로 알려진다. 몇몇 학자들은 고대 아카드어와 동세적인 Eblaite를 고대 아카드어의 한 형식으로 간주한다.

고대 바빌로니아어는 문화적인 그리고 통시적인 요소들의 수렴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언어의 고전 무대로 간주된다: 이 가장 이른 무대에서 우리들은 글로 쓰여진 문서들의 커다란, 차이나는, 그리고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몸체를 지닌다. 고대 바빌로니아어가 어떤 규범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그 언어의 후대 문화적 드러남들이 의식적으로 고대 바빌로니아어에 따라—특히 말해진 언어로서의 아카드어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때인 기원전 첫 번째 천년 중반에 사용된 문어적인 방언인 Standard Babylonian(표준 바빌로니아어)에 따라 모델지워진다는 사실에 의해서 주장된다.

두 번째 천년의 후반부 동안에 앓카드어는 남서 아시아에 두루 걸치는 *Lingua franca*(혼합언어, 중심언어)로서 사용된다. 다른 언어들의 화자들에 의한 표현의 공유된 매개체로서의 그것의 쓰임새를 통해서, 그것은 바빌로니아와 앓시리아의 핵심 지역에서 분리되어 겪는 자연적인 언어학적인 발전으로부터 오히려 일탈(*divorce*)된 서기(*scribal*, 書記)적인 전문어(*lingo*)로 발전했다.

외부 영향들이 아카드어의 연구에 있어 중요하다. 자신의 문화적 우월성(*primacy*)때문에, *수메르어*는 언어학적인 발전을 모양짓는 데에 분명히 의의있는

역할을 했을 것처럼 보인다. 사전에로의 그것의 강한 영향과는 별도로 자주 제시되는 특징은 아카드어 음성학의 구성은 후대 셈어와 비교하여 볼 때 유형론적으로 고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며 그리고 그것의 구문론의 주어 목적어 동사 특성이다. 다른 의의있는 사전적 영향은 *Hurrian*과 *Aramaic*으로부터 왔다.

아카드어에 관한 **재원(sources)**들에 대해서는 Soden 1952와 Gelb 1961과 Hecker 1968과 Groneberg 1987과 Huehnergard 1988을 보라. 역사적인 연결들을 위해서는 Castellino 1962와 Gelb 1969를 볼 것이며, 글쓰기 체계를 위해서는 Soden & Röllig 1967을 볼 것이고, 사전들을 위해서는 Gelb et al. 1956, Soden 1965-81을 볼 것이라. Reiner 1966의 저술은 주요한 지시이다.

이용 가능한 재원들의 자연은 언어학적인 실재로서의 아카드어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의의있는 한계들을 부여한다. 첫째, 아카드어는 소멸된(extinct) 언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아카드어가 죽어버린 정확한 때는 기록으로부터 식별되지 않는다: 앗시리아 제국의 끝 무렵에는(기원전 약 7 세기) 이미 아람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말해지는 공통어로서의 지위를 대신했다고 생각될 수 있다.

둘째, 비축된 자료의 크기가 방대하고 그 자료의 자연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기는 해도, 그 언어에 관한 우리의 앎이 거기에 토대를 두는 텍스트적 증거는 말해진 언어의 투명한(transparent)기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편지들을 제외하면 그 증거의 많은 부분이 산재했던 서기관의 여과장치(filter)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특히 (행정 또는 법 또는 제의 또는 학자적인 실천에 속하든) 도식적이고, 기교적인 텍스트들에 주목할만 하고, 마찬가지로 신화들과 서사시들로부터 찬양시와 지혜 텍스트들에 이르기까지 문어적 전통에서의 표준화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증거는 주로 도시 엘리트들에게 속하나, Amorite는 (비록 이것이 Amorite의 일상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의 Akkadian/Eblaite의 시골 맞상대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

3-2-7)글쓰기 체계.

서기소(graphemic, 書記素)적 분석은 아카드어의 고유한 언어학적 이해를 위해 특히 중요하다. 우리의 문서가 배타적으로 글로 쓰여있는 것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글쓰기 체계의 복잡함들 때문이기도 하다. Assyriology(앗시리아 학)의 문헌학적인 전통은 서기소적 분석이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 분명해지기 오래 전에 서기소적인 분석의 욕구에 직관적으로 반응했으며, 서기소적인 규칙들의 정합적으

로 지각된 체계의 엄격한 적용에 토대를 둔 음절적 값과 어표적인 값 이 양자의 현대 비축된 재료의 증거가 됐다. 췌기문자 스크립트의 기호들은 숫적으로 수 백 개이며 그리고 [기호들에] 상응하는 값들은 숫적으로 수천개에 이른다(각기 기호에 여러 값들을 허락하거나 또는 ‘다성(polyphony, 多聲)적’이다). 그러나 주어진 어떤 텍스트 장르 이내에서 작동하는 기호 목록은 200개와 300개 사이의 범위에 놓여있으며, 그리고 다중 값들은 상호관계의 규칙에 의해서 용법 상 제한된다. 서기소들의 범위와 의의는 텍스트 자료에 근거한 독립적인 언어학적 작업은 그것들의 서기소적인 구현물에 관한 값에 반드시 토대를 두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다. (다른 셈어에서 사용되는 글쓰기 체계와는 대조적으로) 그 글쓰기 체계는 충분한 모음 표기법(notation)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기만적으로 단순하다.

살아있는 셈어의 비교학적인 증거로부터 대부분 모아진, 음성학적인 구현들에 관한 근사치적인 값만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아카드어의 음소는 잘 이해된다. 특별한 목록 아이템들 보다는 오히려 분포적(distributional)인 배열들에 여전히 주로 불확실함들이 속한다. 특별한 목록 아이템들 중에 고대 아카드어에 있어서의 여분의 치찰음이 가능하며, 분포적인 배열(arrangements)들 중에는 모음들이 어-두 위치에 허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물음(선택적으로 폐쇄 후음이 요구될 것이다)과 강세의 자연과 위치에 관한 물음이 있다.

대부분의 후두음(laryngeal) 들과 인두음(pharyngeal)들의 (이미 고대 아카드어에서의) 상실에 의해 보여지고, 단지 부분적으로 a에서 e로의 모음 변화에 의해 상쇄되는 것처럼, 통시적으로 **아카드어 음성학**은 대부분의 후대 셈어들의 그것 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다. 흥미로운 현상은 끝-이전 위치에서의 짧은 강세없는 모음들은 질적으로 잇따르는 모음에 동화하는 고대 앗시리아어의 모음조화이다.///

아카드어 글쓰기(Akkadian Writing): 22 개에서 30 개 기호들의 한정된 수로 구성된, 시리아에서 기원한 글쓰기 형식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모두 발전된, 글쓰기들을 사용했던 다른 모든 셈어와는 대조적으로, 아카드어는 수메르어로부터 잘전한, 약 600 여개의 낱말과 음절 기호들을 사용했다.

음성학(Phonology): 고전 아카드어는 20 개의 **자음소**들을 지닌다. 그것들은 ‘, b, d, g, ḥ, j, k, l, m, n, p, q, r, s, š이다. 길고 짧은 a, i, e, u 등 여덟개의 **모음소**들이 있다.

3-2-8) 형태론

명사는 남성과 여성 이라는 두 개의 성과 그리고 단수와 복수와 쌍수(dual) 라는 세 개의 수들과 그리고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 이라는 3 개의 격들을 지닌다. 어간에 형태소 -at- 또는 -t-를 덧붙혀짐에 의해서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구분된다. 복수는 보통 단수의 성(gender) 모음을 길게 함에 의해서 형성된다. kalbu (m), “dog”과 나란히 kalbū(본디 *kalbūm), “dogs” 또는 kalbatu (m) “bitch”와 나란히 kalbātum (m) “bitches”. 후에 남성 복수는 어미들 -ē와 -ānu/i와 함께 형성됐다. 고대 쌍수의 쓰임새는 classical Akkadian에서 몸의 부분들을 가리키는 낱말들에 한정된다. 단수 격 어미들은 주격의 경우 -um, 소유격의 경우 -im, 그리고 목적격의 경우 -am이다. **mimation**은 어떤 기능도 지니지 않았으며 그리고 후대에 사라졌다. 고대 아카드어의 유일한(only) 특징은 여격 어미로 -iš를 그리고 locative 격 어미로 -ūm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iprus, “he decided”, “he has decide”에서와 같은 과거(preterit)와 iparras, “he decides”, “he will decides”에서와 같은 현재-미래 등 두 가지 시제(tense)를 동사는 지닌다. 시제없는 상태(tenseless stative) (또는 permansive)는 이 동사에있어서 “it is (was, will be) being decide”로 번역될 수 있는 형식 paris를 지닌다. 네 가지 주요한 어간들 중에서 첫 번째 것, 곧 위에서 인용된 예들의 것이 근본적인 어간이라고 불리운다. 두 번째 어근 자음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서 표시되는 두 번째 어간은 행위의 복수성 또는 강도(intensity)를 가리키거나 또는 자동사들에게 사역적인 의미를 제공한다. 삽입어 š에 의해 표시되는 세번째 어간은 ušapris, “he caused to decide”에서처럼 사역(causative使役)을 가리키며, 삽입어 n에 의해 표시되는 네번째 어간은 (inparis로부터의)ipparis, “it was decided”에서처럼 중간수동(mediopassive)을 가리킨다. 상호적인, 재귀적인, 반복적인 그리고 다른 상(aspects, 相)의 다양한 변화(shades)를 가리키기 위해 그 어간들 각 각은 더 나아간 삽입어 t, tn (그리고 심지어 tt, ttn)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다. t를 지니는 형들은 완료(perfect) 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시제로 전개됐다. 마찬가지로 동사는 접속법(subjunctive), allative, 단지 2인칭만을 사용하는 명령법, 부정법(infinitive, 不定法) 그리고 분사들을 구분한다.

/// 다른 셈어들에서처럼 두 가지 주요한 체계들이 작동한다. ‘내적 변화’(internal inflection)[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는 ‘어근’과 ‘패턴’이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형태소들의 강제적이고 배타적인 상호관계 위에서 지어지는 반면 다른 하나 곧 ‘외적인 변화’(external inflection)는 결국 내적인 변화를 통해 파생될 수 있거나 또는

파생될 수 없을 음절의 핵 앞 또는 뒤의 접사(affixes)들의 누적적인 덩어리 위에 토대를 둔다. (표준 아카드어 문법들의 경우, 주로 내적 변화가 낱말 형성의 과정으로서 이해된다). 내적 변화가 차용어들에 자유롭게 덧붙여지는 다른 셈어들과는 대조적으로, 아카드어는 그런 세로운 형성들을 회피한다: 이것은 모든 동사 형들이 내적 변화에 토대를 두므로 그 언어는 차용된 동사들의 선명한 보기들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의 명사적 사전에서 과중하게 수메르어에 의존하는 아카드어에 비추어 볼 때 훨씬 더 놀라운 모든 것이다.

명사적 체계는 격 어미들의 충분한 쓰임새를 만든다. 세 가지 주요한 격들이 개략적으로 특별한 구문론적 기능들과 상호관계하면서 단수에 있어 작용한다: (-um으로 끝나는) 주격은 주어를 확인하며, (-am으로 끝나는) 목적격은 목적어를 확인하고, (-im으로 끝나는) 소유격은 명사 구문의 두 번째 성분을 확인한다(예를 들어 *bīt awīlim* ‘house of the man’). 복수의 경우, (-ī로 끝나는) 단일한 사격(oblique case, 斜格)은 목적격과 소유격 이 양자의 기능들을 포괄하며, 그리고 -u는 주격을 표시한다. 부분적으로 그 스크립트에서 보유되는, 격 어미들은 기원전 첫 번째 천년 초기에 상실됐던 것처럼 보인다.

동사체계의 중요한 특징은 상(aspect, 相) 범주의 부재이다. 대신에 두 가지의 다른 근본적인 차원들의 동사 변화가 있다. 첫째, 화자와의 시간적인 관계 속에 그 과정을 위치시키는 진실한 시제(tenses)들이 있다. (현재/미래를 위한) ‘현재’와 그리고 과거(perterit) 이외에도, ‘완료’(perfect) 라는 아카드어의 독특한 형식이 있다. 삽입되는 i와 함께하는 이 완료형은 (최소한도 고대 바빌로니아어에서) 미래에 있어서의 앞의 때(anteriority) 또는 과거에 있어서의 뒤의 때(posteriority)를 표현한다 (*iktašad* ‘he will have then reached’ 또는 ‘he then had reached’). 둘째, 변화가 행위 또는 조건을 가리킨다. 전자는 한정형들(시제들과 명령)에 의해 표현되며, 그리고 후자는 아카드어에 특별한 형식인 ‘**permansive**’에 의해 표현된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동사적 범형의 분리된 성분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그것을 동사적 어근들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형용사들을 포함하는, 명사의 다양한 변화로 보는 것이 구조적으로 훨씬 더 적절하다.

중요한 형태음소적 규칙들이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 이 양자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선택(alternations, 번갈음)과 더불어, 아카드어에서 확인됐다. 특징적인 규칙은 1) 나머지 두개는 짧은 세 개 음절들 그리고 2) 형태소 경계의 어떤 유형을 포함하는 연이어짐(sequence)은 두 개의 음절로 구현된다 예를 들어 형태소 {*damiq-um*}은 음소적으로 /*damqum*/으로 구현된다.

흥미로운 통시적인 변화는 우언(periphrastic, 迂言)적인 형식을 애호하는 변화를 포기하는 경향에 의해서 나타내진다. 그래서 예를들어 (삽입된 t를 지니는 예를들어 ittalak ‘he went away from, he left’) 동사의 분리된 형식 또는 (접미된 -am 등을 지니는 예를들어 illikam ‘he went to, he came’) allative는 심지어 움직임의 수식어구(adjuncts)들이 대화 중에 부재할 때 조차, 움직임의 그런 수식어구들에 구문론적으로 지시적인 것으로 (초기에) 이해될 수 있으리라. 후대 방언들의 경우, 접사적(affixed)접사적인 형식들의 지시적인(referential)값은 기껏해야 흔적으로 남아있으며 그리고 분석적인 수식어구들이 요구된다.

3-2-9)구문론과 의미론

이런 분야들은, 심지어 사전적인 문제들에 있어 움터오는 관심이 있어왔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의미론의 경우 이것은 낱말들이 특별한 현실물에 관련하여 그것들의 외연적인 값을 위해 연구됐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문론의 경우 구들과 문장들은 형태소적인 핵심어(keywords)에로의 집중을 가지고 연구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셈어들 중에서 아카드어에는 여러 구문론적인 구분된 특징들이 있다. 다음의 것들이 언급될 수 있으리라:

ㄱ) (문장들이 접접사 -ma에 의해 연결되는 곳에서의) ‘사실적인 종속’(virtual subordination)의 쓰임새가 부유하지만 그러나 잘 이용되지않는(underutilized) 접속사들의 목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normal) 종속을 거의 대신했다.

ㄴ) 제한 관계절들이 관계대명사의 쓰임새 없이 발생한다. 대신에 명사는 짧아진 형식(연계형, ‘construct state’)으로 발생한다—예를들어 awīl illiku ‘the man who came’, vs. 비(非)-제한(non-restrictive) 절은 관계 대명사들과 함께 발생한다 awīlum ša illiku ‘the man, who came ...’.

ㄷ)형태론적으로 동사체계의 변화 구조의 부분인 세 가지 명사적 형식(부정형(infinitive), 동사적 형용사, 분사)들은 목적격을 지배할 수 있으리라. 예를들어 bītam ina amaīrim ‘in seeing the house’.